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송 미 령 연구 위원
노 승 철 위촉전문연구원

머 리 말

우리 농어촌은 인구·사회·경제·산업 등 다양한 측면의 변화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공간이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을 정의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보니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펼치기는 하지만 그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어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정책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의 수집, 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우선, 농어촌을 2012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읍(邑)과 면(面)으로 정의하고 도시와의 비교를 위해 동(洞)의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공식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에서 농어촌이 차지하는 비중을 초점을 둔 ‘농어촌의 위상’, 다양한 지표를 통해 도·농 간 차이를 비교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가의 특징을 분석한 ‘농업과 농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는 인구·주택·산업·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 등 삶의 질 향상 정책의 7대 부문에 따라 도·농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집에서 담고 있는 분석이 향후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시계열적으로 우리 농어촌의 변화 모습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 등을 간추리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자료집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차 례

제1장 개 요	1
제2장 농어촌의 위상	5
제3장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1. 농어촌의 인구 구성	12
2. 기초 생활 인프라의 수준과 수요	31
3. 경제 활동	45
4. 보건·복지	60
5. 교육 여건	69
6. 문화·여가 생활 여건	78
7. 환경	85
제4장 농업과 농가 그리고 농어촌 마을	
1. 농업과 농가	90
2. 농어촌 마을	98
참고문헌	109

표 차 례

제1장

표 1-1. 주요 통계자료의 생산 기관 및 수집 단위	3
표 1-2. 주요 통계자료의 생산 기관 및 수집 단위(계속)	4

제2장

표 2-1. 행정구역 수	5
표 2-2. 주요 지목별 면적	7
표 2-3. 총 인구 수	8
표 2-4. 사업체 수	9
표 2-5. 종사자 수	10
표 2-6. GRDP 및 1인당 GRDP	11

제3장

표 3-1. 인구 수 및 증감률	13
표 3-2. 읍·면의 내(외)국인 증감률	14
표 3-3. 고령화율과 노년부양비	15
표 3-4.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율	18
표 3-5. 교육정도별 인구	19
표 3-6. 대졸자 비율	19
표 3-7. 전출입 및 순이동률	20
표 3-8.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21
표 3-9. 외국인 유형별 현황	22
표 3-10.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유형별 현황	23
표 3-11. 다문화 농가 및 인구 현황	24

표 3-12. 연령별 귀농 전입가구원	25
표 3-13. 이동구분별 귀농가구 수	26
표 3-14. 가구 규모별 가구 수	27
표 3-15. 세대구성 비율	28
표 3-16. 주택유형별 가구 수	29
표 3-17. 점유형태별 가구 수	30
표 3-18. 자동차 보유 현황	30
표 3-19. 주택 수 및 주택 보급률	31
표 3-20. 주택유형별 주택의 분포	32
표 3-21. 건축연도별 주택	33
표 3-22. 사용방수 및 주거 면적	34
표 3-2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35
표 3-24. 식수 이용형태별 가구 수	36
표 3-25. 하수도 보급률	37
표 3-26. 난방시설별 가구 수	38
표 3-27. 도로 공급 및 포장률	39
표 3-28. 생활 서비스 종사자 수	40
표 3-29. 보육시설 현황	40
표 3-30. 의료서비스 현황	41
표 3-31. 응급의료시설의 지역별 배치 현황	42
표 3-32. 응급의료기관의 평균 응급실 규모 및 인력 현황	42
표 3-33.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43
표 3-34.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도	44
표 3-35. 소득 만족도	45
표 3-36. 소비생활 만족도	46
표 3-37.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47
표 3-38.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48
표 3-39. 고용 안정성	48

표 3-40. 임금 만족도	49
표 3-41. 직장을 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50
표 3-42. 사업체 수 및 형태별 비율	50
표 3-43. 사업체 및 농업종사자 수	51
표 3-44. 산업대분류별 일자리 비율	52
표 3-45.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53
표 3-46.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54
표 3-47.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55
표 3-48. 취업자의 근무기간	56
표 3-49. 취업자의 직업분포	57
표 3-50. 통근·통학 유형별 인구	58
표 3-51. 분야별 사회적 기업	59
표 3-52. 주민의 건강수준	61
표 3-53. 전염병 발생건수	62
표 3-54. 보건 의사 및 장기요양 전문 인력	63
표 3-55. 병원 및 약국 밀도	63
표 3-56. 연간 미 치료율	64
표 3-57. 취약계층 현황	65
표 3-58. 노인복지시설	66
표 3-59. 복지예산 비중	67
표 3-60.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68
표 3-61. 고령인구의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	68
표 3-62. 학교 급별 현황	69
표 3-63. 복식학급 초등학교 수	70
표 3-64. 유형별 고등학교 현황	70
표 3-65.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71
표 3-66.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71
표 3-67. 공공도서관 현황	72

표 3-68. 농어촌의 교육시설 소요시간별 행정리 수	72
표 3-69. 학년별 학업성취도 평가 우수학력 비율	73
표 3-70. 사설학원 수	74
표 3-71. 사교육 참여율	74
표 3-72. 방과 후 학교 참여율	74
표 3-73. 대학교 진학률 및 학교 현황	75
표 3-74. 평생교육기관 현황	76
표 3-75. 지역규모 및 연도별 평생 교육 기본 개황	76
표 3-76. 평생교육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	77
표 3-77. 여가 활동 만족도	78
표 3-78.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의 변화	79
표 3-79. 여가시간 및 비용 현황	79
표 3-80. 여가 활동 순위	80
표 3-81.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80
표 3-82. 국내외 여행 경험률	81
표 3-83. 연간 문화예술 향유 현황	82
표 3-84.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82
표 3-85. 문화·여가 시설 현황	83
표 3-86. 지역축제 현황	84
표 3-87. 환경 만족도	86
표 3-88. 녹지 및 입목지 현황	87
표 3-89.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88
표 3-90. 대기오염 물질 현황	88
표 3-9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89

제4장

표 4-1. 농가 및 농가 인구 변화	91
표 4-2. 연령별 농가 인구 변화	92

표 4-3. 농업인구의 주 종사분야	93
표 4-4. 교육정도별 농가 인구	93
표 4-5. 농가 경지 현황	94
표 4-6. 농업 및 농외소득	95
표 4-7. 농업의 수익성·생산성·안정성 지표	96
표 4-8. 농업 관련 사업 경영농가	97
표 4-9. 농어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98
표 4-10. 인구 과소화 마을(20호 미만) 현황	99
표 4-11. 읍·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소요시간별 마을 비율	100
표 4-12. 빈집 현황	101
표 4-13. 도·농교류활동 행정리 수	102
표 4-14. 농촌의 정보화 및 활용 현황	103
표 4-15. 시내버스 운행횟수별 행정리 비율	104
표 4-16.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소요시간별 행정리 수	105
표 4-17. 병원까지 소요시간별 행정리 비율	106
표 4-18. 파출소와 119 안전센터까지 소요시간별 행정리 비율	107
표 4-19. 정부가 우선해야 할 농어촌정책에 대한 응답 비율	108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3-1. 연령별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수 및 비율	16
그림 3-2.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구조	17

제 1 장

개 요

- 농어촌은 인구·사회·경제·산업 등 다양한 측면의 변화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이에 본 자료집은 국내 각 분야의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 농어촌 지역을 정의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읍(邑)과 면(面)을 농어촌으로 정의한다. 더불어 동(洞)을 도시로 구분하여 비교를 통해 농어촌의 상대적인 여건을 파악한다.
- 그러나 동·읍·면 단위의 자료 구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市)와 군(郡)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시의 경우 행정구역 내 읍과 면을 포함한 도농복합시가 있으며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으로만 이루어진 일반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도농복합시는 동에 비해 읍·면 지역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읍·면·동 단위의 통계자료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는 지역을 동으로만 이루어진 ‘일반시’, 읍·면·동을 모두 포함한 ‘도농복합시’, 읍과 면으로만 구성된 ‘군’으로 구분하였다.
 -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경제·산업이나 공간구조에서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 단, 광역시 내 5개 군(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옹진군, 울산 울주군)은 ‘군’으로 포함하였다.
 - 2012년 시로 승격한 당진시는 2010년 자료에서도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 통계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군으로 포함하였다.
- 분석은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에서 농어촌이 차지하는 비중을 초점을 둔 ‘농어촌의 위상’, 다양한 지표를 통해 도·농 간 차이를 비교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특징을 분석한 ‘농업과 농가 그리고 농어촌 마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농어촌의 위상’에서는 인구·산업·소득 등에서 농어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 전체에서 농어촌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는 인구·주택·산업·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 등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따라 도·농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 ‘농업과 농가 그리고 농어촌 마을’에서는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농가와 농업 그리고 농어촌 마을의 삶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는 자료 생산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된 공식 통계를 사용하였다.
 - 자료는 현재(2013년)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통계 생산 주기가 5년 또는 격년인 일부 자료(예: 인구주택총조사, 농

림어업총조사)들은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 주요 자료의 출처 및 수집 단위는 <표 1-1, 1-2>와 같다.

표 1-1. 주요 통계자료의 생산 기관 및 수집 단위

자료명	생산기관	시점	조사 주기	수집단위
통계연보	지자체	2012	매년	시군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5년	읍면동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11	매년	읍면동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2	매월	읍면동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2012	매월	시군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0	5년	읍면동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0	반기	시군
귀농·귀촌인 통계	통계청	2012	매년	시군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2012	매년	시도
사회조사	통계청	2013	매년	읍면동부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2012	매년	읍면동부
한국도시통계	안전행정부	2009	매년	시군
주민등록인구현황	안전행정부	2012	매월	읍면동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안전행정부	2012	매년	시군
지방재정연감	안전행정부	2012	매년	시군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환경부	2012	매년	시군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	2012	매년	시군
하수도통계	환경부	2012	매년	시군

주1: 시점은 본 자료집에서 사용된 시점임.

주2: 수집단위에서 ‘읍면동’은 개별 읍면동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읍면동부’는 개별 읍면동의 자료는 발표되지 않으나 전국을 동부, 읍부, 면부로 구분하여 발표되기 때문에 도·농 간 비교는 가능한 자료를 의미함.

표 1-2. 주요 통계자료의 생산 기관 및 수집 단위(계속)

자료명	생산기관	시점	조사 주기	수집단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	2년	읍면동부
전국 시·도별 축제총괄표	문화체육관광부	2012	매년	시도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2	매년	시군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	매년	읍면동부
공공도서관현황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2	매년	시군
지적공부등록지현황	국토교통부	2012	매월	읍면동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09	매년	시군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	2010	매년	시군
교육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12	매년	시군
유초중등통계	한국교육개발원	2012	매년	시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 연구원	2012	매년	읍면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	매월	시군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한국감정원	2012	매월	시군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매년	시군

주1: 시점은 본 자료집에서 사용된 시점임.

주2: 수집단위에서 ‘읍면동’은 개별 읍면동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읍면동부’는 개별 읍면동의 자료는 발표되지 않으나 전국을 동부, 읍부, 면부로 구분하여 발표되기 때문에 도·농 간 비교는 가능한 자료를 의미함.

제 2 장

농어촌의 위상

-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3,479개의 동·읍·면이 있다. 숫자상으로는 약 2/3 가량이 동이며, 면이 천여 개, 읍은 2백여 개로 매우 적다.
 - 동의 절반은 광역시의 자치구 내에 있으며 나머지 반은 각각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분포되어 있다.
 - 읍·면지역은 약 절반 이상이 군에 속해 있으나 도농복합시 내에 있는 읍·면의 비율도 약 40%에 이른다.

표 2-1. 행정구역 수

(단위: 개)

행정구역		동	읍	면	전국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1,103			1,103
	군		10	36	46
시	일반시	434			434
	도농복합시	536	92	468	1,096
군			114	686	800
합계		2,073	216	1,190	3,479

주: 2012년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자료: 안전행정부(2012), 주민등록인구현황.

- 우리나라 국토의 총면적은 10만km²이며 면이 총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읍과 동이 각각 14.6%, 10.4%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지역별 지목 구성을 보면 동은 우리나라 면적의 10.4%에 불과하지만 주요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는 지목 ‘대’와 ‘공장용지’의 토지는 45.9%와 40.8%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반해 읍·면은 ‘전’, ‘답’, ‘임야’, ‘하천’ 등의 비중이 크고 특히 면에는 우리나라 임야, 하천, 구거, 유지의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다.

표 2-2. 주요 지목별 면적

(단위: km², %)

	동	읍	면	전국
합계	10,408(10.4)	14,663(14.6)	75,078(75.0)	100,148(100)
대	1,279(45.9)	400(14.4)	1,106(39.7)	2,785(100)
공장용지	319(40.8)	158(20.2)	304(38.9)	781(100)
도로	730(25.0)	463(15.9)	1,722(59.1)	2,915(100)
전	735(9.4)	1,397(17.9)	5,670(72.7)	7,802(100)
답	1,096(9.3)	1,911(16.2)	8,757(74.4)	11,763(100)
임야	4,544(7.1)	8,637(13.4)	51,155(79.5)	64,337(100)
하천	411(14.5)	460(16.2)	1,970(69.3)	2,841(100)
구거	156(8.8)	263(14.8)	1,357(76.4)	1,776(100)
유지	87(6.6)	157(11.9)	1,074(81.5)	1,318(100)
기타	1,052(27.5)	816(21.3)	1,963(51.2)	3,831(100)

주1: 지목 중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또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소로부지이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이다(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

주2: 기타에는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제방,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잠종지 등이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2012), 지적공부등록지현황.

- 2012년 말 우리나라 인구는 약 5,095만 명으로 특별시·광역시·일반시에 62.6%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도농복합시에 28.1%, 군지역에 9.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 동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은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 우리나라 읍·면 인구는 약 953만 명이며 도농복합시(493만 명)와 군 지역(461만 명)에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2-3. 총 인구 수

(단위: 천 명, %)

지역구분		동	읍	면	전국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22,631 (54.6)			22,631 (44.4)
	군		369 (8.2)	225 (4.5)	594 (1.2)
시	일반시	9,386 (22.7)			9,386 (18.4)
	도농복합시	9,397 (22.7)	2,339 (52.1)	2,590 (51.3)	14,325 (28.1)
군			1,779 (39.7)	2,233 (44.2)	4,012 (7.9)
합계		41,413 (100)	4,487 (100)	5,047 (100)	50,948 (100)

주: 2012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안전행정부(2012), 주민등록인구현황.

-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347만 개의 사업체가 있다. 이 중 81.4%가 동에 위치해있으며 읍과 면에 각각 9.2%, 9.4%의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다.
 - 도시지역(동)에는 282만 개의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161만 개, 57.0%)에 있다

- 시에서는 일반시(58만여 개)에 비해 도농복합시(64만여 개)에 약 1.6배 많은 사업체가 분포해 있다.
- 읍·면 지역 사업체를 보면 군에서는 읍에 사업체가 더 많으나, 도농복합시에서는 읍보다 면에 더 많은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다.

표 2-4. 사업체 수

(단위: 천 개, %)

지역구분		동	읍	면	전국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1,611 (100)			1,611 (100)
	군		23 (59.0)	16 (41.0)	38 (100)
시	일반시	577 (100)			577 (100)
	도농복합시	636 (66.6)	145 (15.2)	173 (18.1)	954 (100)
군			152 (52.4)	137 (47.6)	289 (100)
합계		2,824 (81.4)	320 (9.2)	326 (9.4)	3,470 (100)

자료: 통계청(2011), 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 종사자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총 종사자 1,809만여 명 중 81.2%가 도시 지역(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읍과 면에 각각 8.7%, 10.2%가 분포되어 있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동에 분포되어 있으며 읍에 비해 면에 종사자가 더 많다. 반면 군에서는 면보다 읍에 종사자가 다소 많으나 두 지역에 비슷한 비중의 종사자가 분포되어 있다.

표 2-5. 종사자 수

(단위: 천 명, %)

지역구분		동	읍	면	전국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8,638 (100)			8,638 (100)
	군		122 (57.7)	90 (42.3)	212 (100)
시	일반시	2,924 (100)			2,924 (100)
	도농복합시	3,130 (62.3)	773 (15.4)	1,120 (22.3)	5,023 (100)
군			670 (51.6)	627 (48.4)	1,297 (100)
합계		14,691 (81.2)	1,565 (8.7)	1,836 (10.2)	18,093 (100)

자료: 통계청(2011), 전국사업체조사.

- 지역별 경제활동 및 소득 수준을 지역내 총생산(GRDP)을 통해 살펴보면 자치구가 2010년 우리나라 총생산의 약 42.4%를 차지하며, 이어 도농복합시가 29.3%를 차지한다.
 - 우리나라의 GRDP는 2005~2010년까지 5년 간 약 22.8% 증가하였으나, 일반시가 약 35%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군은 13.6%의 증가율을 보여 지역 중 증가율이 가장 작았다.
 - GRDP 증가율의 차이로 전체 GRDP에서 자치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 간 약 2.6%p 감소한 반면 일반시의 비중은 약 1.6%p 증가하였고, 군은 0.8%p 감소하였다.
- 지역별 1인당 GRDP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일반시의 1인당 GRDP가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군의 1인당 GRDP가 가장 높고 이어 도농복합시, 일반시, 자치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05~2010년 간 전국 1인당 GRDP는 약 16.6% 증가하였고, 일반시의 증가율이 17.7%로 가장 큰 반면 자치구는 13.3%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2-6. GRDP 및 1인당 GRDP

	GRDP(십억 원, %)			평균 1인당 GRDP(백만 원, %)		
	2005년	2010년	증감률	2005년	2010년	증감률
전국	869,305 (100)	1,067,219 (100)	22.8	18.8	22.0	16.6
자치구	391,429 (45.0)	452,495 (42.4)	15.6	18.5	21.0	13.3
일반시	144,077 (16.6)	194,694 (18.2)	35.1	24.5	28.8	17.7
도농복합시	255,131 (29.3)	312,599 (29.3)	22.5	20.2	23.6	16.7
군	94,603 (10.9)	107,431 (10.1)	13.6	21.0	24.3	15.8

주1: GRDP는 2005년 기준 가격이며, 단 대구 달성군은 2007년 GRDP 자료임.

주2: 1인당 GRDP = 지역별 GRDP / 각 연도 센서스 총인구수

자료: 각 시·도(2010), 통계연보(지역내 총생산).

제 3 장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 농어촌과 도시는 인구·면적·경제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양(量)적 비교는 지역 간 삶의 질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구 또는 면적에 대비한 지표를 통해 농어촌과 도시 간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농어촌의 인구 구성

1.1. 인구

- 우리나라 인구는 동지역에 약 80%가 거주하고 있고, 읍과 면에 각각 비슷한 비율이 거주하고 있다. 각 지역에는 약 1~2%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 2000~2010년 간 우리나라 총인구는 6.5% 증가하였으며, 읍에서 13.8%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나 면에서는 6.5%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지난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면에서는

내국인은 8.0% 감소한데 비해 외국인은 약 3.4배 증가하여 농어촌에 외국인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인구 수 및 증감률

	총인구수(천 명)		2000~2010 증감률(%)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국	49,158	48,534	624	6.5	5.5	313.5
동	40,139	39,661	479	7.6	6.7	310.2
읍	4,227	4,176	51	13.8	12.8	295.0
면	4,791	4,697	94	-6.6	-8.0	343.3

자료: 통계청(2000;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읍·면의 인구 증감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와 광역시의 읍에서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군의 읍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 면은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고 광역시에 속한 면보다 도농복합시와 군의 면에서 인구가 더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군의 면에서는 내국인이 10%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 외국인은 모든 읍·면에서 2배에서 4배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광역시나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3-2. 읍·면의 내(외)국인 증감률

		2000~2010 증감률(%)		
			내국인	외국인
읍	소계	13.8	12.8	295.0
	광역시	27.3	26.4	288.1
	도농복합시	28.6	27.5	282.8
	군	-4.0	-4.8	323.1
면	소계	-6.6	-8.0	343.3
	광역시	-0.6	-1.6	192.4
	도농복합시	-4.0	-5.9	321.6
	군	-9.5	-10.6	408.3

자료: 통계청(2000; 2010), 인구주택총조사.

- 2012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연령별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 15~64세 미만 인구 중 17.1%가 농어촌(읍·면)에 거주하고 있다¹.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3%가 농어촌(읍·면)에 거주하고 있어 고령층의 농어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농어촌지역에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 도시는 고령화율이 9.9%인데 비해 읍은 10.2%이고, 면은 무려 21.1%로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특히 노년부양비가 도시지역은 13.3%에 비해 읍은 19.4%, 면은 38.7%로 나타나 고령인구의 증가와 젊은 층의 감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¹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농어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한다.

표 3-3. 고령화율과 노년부양비

(단위: 천 명, %)

	동	읍	면	전국
총인구	41,413(81.3)	4,487(8.8)	5,047(9.9)	50,948(100)
15~64세 인구	30,953(82.9)	3,132(8.4)	3,259(8.7)	37,344(100)
65세이상 인구	4,109(68.7)	609(10.2)	1,262(21.1)	5,980(100)
고령화율(%)	9.9	13.6	25.0	11.7
노년부양비(%)	13.3	19.4	38.7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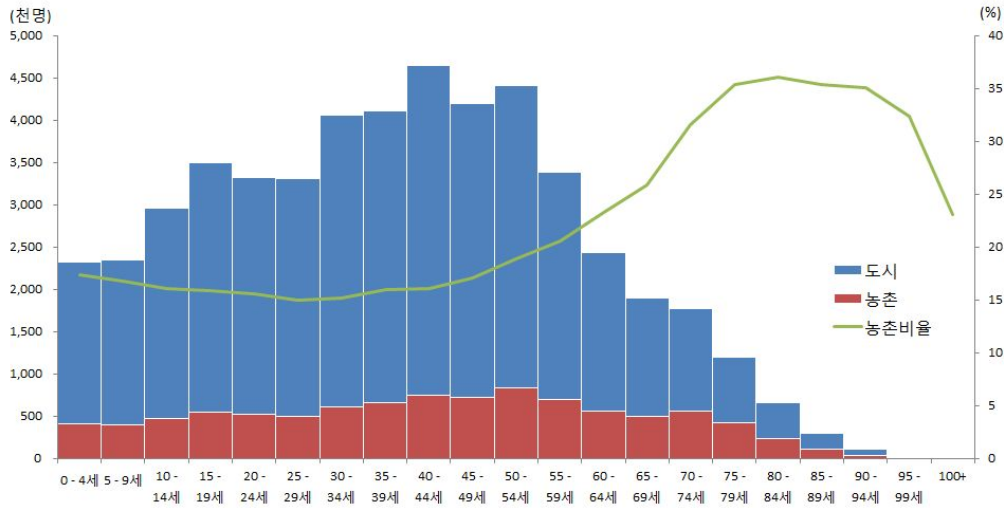
주1: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 / 총인구 * 100

주2: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자료: 통계청(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 농어촌 인구의 비율을 연령별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연령별 인구에서 농어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세에서 30세까지 낮아지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70~80대 연령층에서는 농어촌인구 비율이 30%가 넘는다.
 - 0~4세에서 30세까지 농어촌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농어촌에서 출생하여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80세 이후 농어촌인구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고령층이 의료서비스를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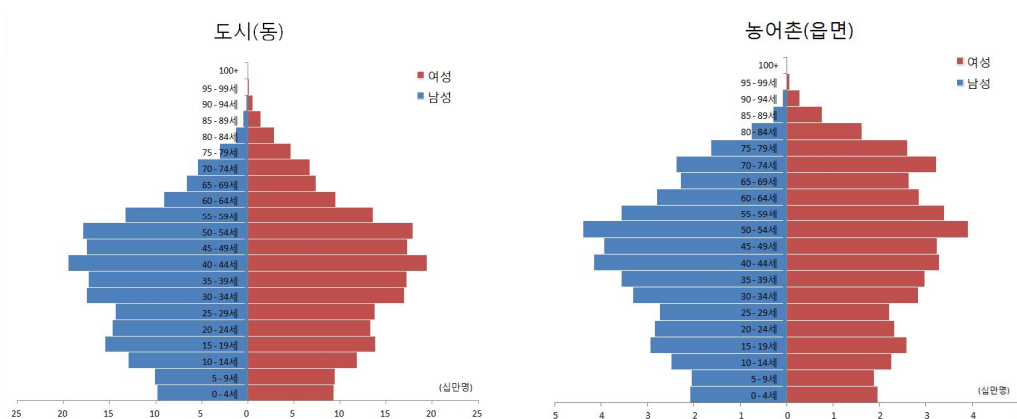
그림 3-1. 연령별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수 및 비율



자료: 안전행정부(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별 성·연령별 인구 구조를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보면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고령층이 많다. 또한 도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고, 농어촌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인다.
 - 도시는 40~44세 연령의 인구가 가장 많고, 농어촌은 50~54세 인구가 가장 많다
 - 농어촌에서 남자는 55세 이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지만 여성은 연령 증가에 따른 감소폭이 작아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점차 커진다.

그림 3-2.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구조



자료: 안전행정부(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별 인구 동태를 보면 전국의 출생건수 약 48만 건 중 16.9%가 농어촌지역 출생건수인데 비해 사망건수는 농어촌지역이 32.1%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과 이혼건수도 출생·사망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이 혼인건수의 16.2%, 이혼건수의 19.4%를 차지한다.
- 조출생률은 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사망률은 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혼인율은 면이 다소 높다.
 - 농어촌에서 인구대비 출생, 사망, 혼인율이 낮은 것은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 구성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3-4.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율

구 분		동	읍	면	전국
동태건수	출생건수 (명)	402,650 (83.1)	47,611 (9.8)	34,232 (7.1)	484,550 (100)
	사망건수 (명)	181,379 (67.9)	28,819 (10.8)	57,021 (21.3)	267,221 (100)
	혼인건수 (건)	266,463 (81.5)	27,117 (8.3)	25,712 (7.9)	327,073 (100)
	이혼건수 (건)	88,785 (77.7)	10,772 (9.4)	11,441 (10.0)	114,316 (100)
동태율 (천명당)	조출생률	9.8	10.7	6.8	9.6
	조사망률	4.4	6.5	11.4	5.3
	조혼인율	6.5	6.1	5.1	6.5
	조이혼율	2.2	2.4	2.3	2.3

주1: 조출생(사망)률 = 연간 출생(사망)자수 / 연앙인구 * 1000

주2: 조혼인(이혼)률 = 연간 혼인(이혼)건수 / 연앙인구 * 1000

자료: 통계청(2012), 인구동향조사.

- 지역별 인구의 교육정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약 31.7%가 대학교 재학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도시는 대학이상 학력자가 33%, 읍과 면은 각각 25.2%와 26.6%를 차지한다.
- 도시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의 비율이 7.7%에 불과하지만 읍은 13%이며, 면은 무려 24.1%를 차지하여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매우 크다.

표 3-5. 교육정도별 인구

(단위: 천 명, %)

	15세이상 인구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미취학
전국	40,204 (100.0)	3,938 (9.8)	3,929 (9.8)	14,143 (35.2)	5,438 (13.5)	9,582 (23.8)	1,579 (3.9)	1,595 (4.0)
동	32,863 (100.0)	2,544 (7.7)	3,055 (9.3)	11,782 (35.9)	4,635 (14.1)	8,568 (26.1)	1,446 (4.4)	832 (2.5)
읍	3,384 (100.0)	441 (13.0)	367 (10.8)	1,266 (37.4)	455 (13.5)	576 (17.0)	73 (2.1)	206 (6.1)
면	3,957 (100.0)	953 (24.1)	507 (12.8)	1,096 (27.7)	348 (8.8)	437 (11.0)	60 (1.5)	557 (14.1)

주: 각 학력 내에는 졸업, 재학, 휴학, 중퇴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국 852만여 명 중 90.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읍과 면에 각각 5.6%, 4.1%가 거주하고 있다.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대졸자 비율을 보면 도시는 23.4%로 1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대졸자이나 읍은 14.1%, 면은 8.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6. 대졸자 비율

(단위: 천 명)

	동	읍	면	전국
15세이상 인구	32,863(81.7)	3,384(8.4)	3,957(9.8)	40,204(100)
대학교 졸업이상 인구	7,692(90.2)	478(5.6)	353(4.1)	8,523(100)
대졸자비율(%)	23.4	14.1	8.9	21.2

주1: 대학교 졸업이상은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휴학, 수료, 졸업을 의미함.

주2: 대졸자 비율 = 대학교 졸업이상 인구 / 15세이상 인구 * 100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지역 인구 변화에 가장 큰 요인인 인구이동률을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일반시는 전입에 비해 전출이 많았으나, 도농복합시와 군은 전입이 많았다. 특히 도농복합시는 순이동률이 0.7%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유입이 많았다.
 - 전출입률을 보면 군은 평균적으로 연간 11%내외의 인구가 전출입을 하고 있으며 일반시와 도농복합시는 약 15%내외의 인구가 이동하여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서 인구 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지역별 순이동률의 최댓·최솟값이 큰 차이를 보여 시·군 간 인구이동 행태가 크게 다를 수 있다.

표 3-7. 전출입 및 순이동률

(단위: %)

	전입률	전출률	순이동률		
			평균	최댓값	최솟값
일반시	15.4	15.8	-0.4	2.8	-2.2
도농복합시	15.0	14.4	0.7	16.9	-3.9
군	12.1	11.9	0.1	5.2	-5.5

주1: 각 집단에 속한 시군의 평균임.

주2: 전출(입)률, 순이동률 = 전출(입)자수, 순이동자수 / 연앙인구 * 100

자료: 통계청(2012), 국내 인구이동 통계.

- 지역 간 인구 이동의 전출입지를 구분해 보면 자치구, 일반시, 도농복합시 전출자들은 73.3%, 57.8%, 64.6% 등 절반 이상이 동일한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군에서 떠난 전출자들은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비율이 29.5%에 불과하다.
 - 자치구 전출자의 73.3%는 다른 자치구로 전입하여 자치구를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도농복합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일반시 전출자들은 절반 이상이 다시 일반시로 전입하지만 자치구와 도농

복합시로 전입하는 비율도 각각 19.2%, 17.5%를 차지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 도농복합시 전출자들의 64.6%는 다른 도농복합시로 전입하고, 군으로 6.1%가 전입하여 자치구와 일반시에 비해서는 군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많다.
- 군 전출자들은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비율이 29.5%에 불과한 반면 자치구로 30.9%, 도농복합시로 24.8%가 이동하여 군을 떠나는 경향이 많다.

표 3-8.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단위: 천 명, %)

		전입지				
		자치구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합계
전출지	자치구	2,566 (73.3)	312 (8.9)	446 (12.7)	175 (5.0)	3,499 (100)
	일반시	282 (19.2)	849 (57.8)	257 (17.5)	80 (5.4)	1,469 (100)
	도농복합시	377 (18.6)	219 (10.8)	1,309 (64.6)	123 (6.1)	2,028 (100)
	군	158 (30.9)	75 (14.8)	127 (24.8)	151 (29.5)	511 (100)
	합계	3,383 (45.1)	1,456 (19.4)	2,139 (28.5)	529 (7.0)	7,507 (100)

자료: 통계청(2012), 국내 인구이동 통계.

- 전국에 등록된 외국인인 약 78만 명으로 총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율은 일반시가 2.98%로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와 군이 각각 2.81%, 2.71%로 다소 낮다.
- 등록된 외국인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일반시는 외국인 중 약 10.8%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반면 도농복합시와 군에서는 6.6%, 7.9%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 특히 군에서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외국인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자녀	합계
전국	607,049 (77.8)	64,751 (8.3)	108,307 (13.9)	780,107 (100)
일반시	218,977 (78.6)	29,985 (10.8)	29,807 (10.7)	278,769 (100)
도농복합시	299,684 (80.1)	24,747 (6.6)	49,780 (13.3)	374,211 (100)
군	88,388 (69.5)	10,019 (7.9)	28,720 (22.6)	127,127 (100)

자료: 안전행정부(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전국에 한국 국적을 가지 않은 외국인은 약 112만여 명이며 이 중 절반은
외국인 근로자이고 이어 결혼이민자, 재외 동포가 많다.
- 일반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외동포의 비율이 높고 도농복합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비율이 높다. 반면 군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지역별로 외국인의 유입 동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3-10.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합계
전국	588,944 (52.7)	144,214 (12.9)	87,221 (7.8)	135,020 (12.1)	162,082 (12.1)	1,117,481 (100)
일반시	117,388 (53.6)	28,698 (13.1)	9,921 (4.5)	28,916 (13.2)	34,054 (15.6)	218,977 (100)
도농복합시	188,429 (62.9)	37,816 (12.6)	22,917 (7.6)	23,652 (7.9)	26,870 (9.0)	299,684 (100)
군	54,791 (62.0)	17,845 (20.2)	3,865 (4.4)	5,650 (6.4)	6,237 (7.1)	88,388 (100)

자료: 안전행정부(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최근 농어촌에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다문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1만 5천여 농가 중 1.29%가 다문화 농가이며, 다문화 농가 인구는 6만 6천여 명으로 전국 농가 인구의 2.27%를 차지한다.
- 다문화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1만 1천여 명이며, 이어 전남은 1만여 명이 다문화 농가이다. 한편 다문화 농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전체 농가의 1.84%, 농가 인구의 3.29%가 다문화 농가이다.

표 3-11. 다문화 농가 및 인구 현황

(단위: 가구, 명, %)

	다문화농가	다문화농가 인구
전국	14,794(1.29)	66,081(2.27)
서울	61(1.96)	306(3.08)
부산	24(0.31)	110(0.48)
대구	28(0.16)	130(0.25)
인천	64(0.47)	313(0.90)
광주	129(1.09)	658(2.00)
대전	10(0.11)	51(0.18)
울산	61(0.52)	236(0.73)
경기	1,423(1.04)	6,538(1.61)
강원	952(1.33)	4,515(2.51)
충북	1,016(1.29)	4,461(2.20)
충남	2,077(1.41)	9,372(2.55)
전북	1,942(1.84)	8,651(3.29)
전남	2,387(1.45)	10,449(2.82)
경북	2,423(1.24)	11,088(2.38)
경남	1,734(1.26)	7,325(2.23)
제주	463(1.21)	1,878(1.66)

주1: 다문화농가란 농가의 가구원 중 외국인 또는 내국인(귀화 등)이 한 명이상 같이 살고 있는 가구임.

주2: 괄호는 총 농가 가구(인구)에서 다문화 가구(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2012), 농림어업조사.

- 2012년 귀농 가구의 가구원은 약 2만여 명이며 50대(30.5%)와 30대 이하(29.7%)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귀농 가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약 3천6백여 명이 귀농하였으며 30대 이하의 비율이 34%로 가장 높다.

표 3-12. 연령별 귀농 전입가구원

	전입 가구원수 (명)	연령대별 비율(%)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국	19,657	29.7	19.5	30.5	15.0	5.4
부산	63	35.4	19.9	26.8	13.6	4.4
대구	158	28.1	19.3	31.6	15.3	5.7
인천	124	27.0	19.0	28.6	17.5	7.9
울산	103	37.3	20.3	25.3	13.3	3.8
세종	125	18.5	19.4	29.8	27.4	4.8
경기	1,819	35.9	15.5	32.0	14.6	1.9
강원	1,601	22.4	22.4	32.8	13.6	8.8
충북	1,598	31.3	18.3	28.3	16.2	5.9
충남	2,112	24.2	18.6	35.8	16.2	5.2
전북	2,257	25.5	18.5	36.8	14.8	4.5
전남	3,008	27.5	17.8	31.0	17.5	6.3
경북	3,596	34.0	21.3	26.7	12.5	5.5
경남	2,602	32.9	20.2	27.2	14.3	5.4
제주	491	26.9	20.3	32.4	14.7	5.8

자료: 통계청(2012), 귀농·귀촌인 통계.

- 귀농 가구의 전입 이동 유형을 보면 다른 시·도로 귀농한 가구(시·도 간 이동)가 72.9%로 가장 높은 비율이 차지하며, 이어 같은 시·도 내에서 이동(시·도 내 이동)한 비율이 18.5%로 높았다.

표 3-13. 이동구분별 귀농가구 수

	귀농가구 수	이동구분별 비율(%)			
		구시군내 이동	구시군 간 이동		
			소계	시도 내 이동	시도 간 이동
전국	11,220	8.6	91.4	18.5	72.9
부산	29		100	75.9	24.1
대구	80		100	82.5	17.5
인천	89		100	37.1	62.9
울산	55		100	58.2	41.8
세종	93		100		100
경기	1,027	10.3	89.7	39.1	50.5
강원	972	8.6	91.4	12.2	79.1
충북	918	3.4	96.6	14.1	82.6
충남	1,214	7.2	92.8	4.6	88.1
전북	1,238	9.3	90.7	29.2	61.6
전남	1,733	5.9	94.1	11.7	82.5
경북	2,080	10.2	89.8	10.9	78.8
경남	1,434	10.6	89.4	26.8	62.6
제주	258	28.3	71.7	16.3	55.4

자료: 통계청(2012), 농림어업총조사.

1.2. 가구

- 2010년 우리나라에는 약 1,734만 가구가 있으며 평균 2.69명이 한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 도시지역은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가구 규모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읍·면일수록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이 크고 특히 면에서는 1, 2인 가구가 66%를 차지한다.

표 3-14. 가구 규모별 가구 수

(단위: 천 가구, %)

	평균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합계
전국	2.69	4,142 (23.9)	4,205 (24.3)	3,696 (21.3)	3,898 (22.5)	1,078 (6.2)	241 (1.4)	17,339 (100)
동	2.74	3,244 (23.1)	3,154 (22.5)	3,120 (22.2)	3,373 (24.0)	892 (6.4)	190 (1.4)	14,031 (100)
읍	2.68	347 (23.3)	400 (26.9)	299 (20.1)	312 (21.0)	98 (6.6)	23 (1.6)	1,487 (100)
면	2.33	552 (30.3)	651 (35.7)	277 (15.2)	213 (11.7)	88 (4.8)	28 (1.5)	1,821 (100)

주: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를 세대(世代)에 따라 나누어보면 전국 가구의 절반이상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가구이며 이어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의 비중이 높다.
 - 세대 구성은 동에서 읍과 면으로 갈수록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의 비중이 높고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낮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가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세대구성 비율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이상	비친족가구
전국	4,142 (23.9)	3,027 (17.5)	8,892 (51.3)	1,063 (6.1)	13 (0.1)	202 (1.2)
동	3,244 (23.1)	2,182 (15.5)	7,599 (54.2)	842 (6.0)	9 (0.1)	156 (1.1)
읍	347 (23.3)	305 (20.5)	714 (48.0)	98 (6.6)	2 (0.1)	23 (1.5)
면	552 (30.3)	540 (29.7)	580 (31.9)	123 (6.7)	3 (0.1)	24 (1.3)

주: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국내 가구의 약 절반 정도인 47.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어 단독주택 거주 가구가 많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절반이상이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가구가 많고 특히 면에서는 약 80%의 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한다.
 -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전체 가구의 약 60%가 생활하고 있다.
 - 반면 읍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연립주택 비율이 다소 높고, 면에서는 대부분의 가구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한다.

표 3-16. 주택유형별 가구 수

(단위: 천 가구, %)

	합계	주택						주택이 외의 거처
		소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전국	17,339 (100)	16,985 (98.0)	6,860 (39.6)	8,169 (47.1)	502 (2.9)	1,242 (7.2)	212 (1.2)	354 (2.0)
동	14,031 (100)	13,706 (97.7)	4,789 (34.1)	7,180 (51.2)	404 (2.9)	1,164 (8.3)	169 (1.2)	325 (2.3)
읍	1,487 (100)	1,478 (99.4)	628 (42.2)	711 (47.8)	67 (4.5)	52 (3.5)	20 (1.3)	9 (0.6)
면	1,821 (100)	1,801 (98.9)	1,442 (79.2)	278 (15.3)	31 (1.7)	26 (1.4)	23 (1.3)	20 (1.1)

주: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4.2%)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어 ‘전세’ 거주자와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가 많다. 자가 비율은 동에서 읍과 면으로 갈수록 높아져 면에서는 78.2%의 가구가 자가 가구이다.
 - 차가 형태는 전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도시에서는 전세와 월세 가구의 비중이 비슷하다.
 - 읍에서는 자가 비율이 약 60% 이상으로 절반이상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면에서는 대부분이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

표 3-17. 점유형태별 가구 수

(단위: 천 가구, %)

	자가	전세 (월세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합계
전국	9,390 (54.2)	3,766 (21.7)	3,148 (18.2)	342 (2.0)	230 (1.3)	464 (2.7)	17,339 (100)
동	7,058 (50.3)	3,405 (24.3)	2,819 (20.1)	278 (2.0)	177 (1.3)	293 (2.1)	14,031 (100)
읍	908 (61.0)	238 (16.0)	208 (14.0)	30 (2.0)	31 (2.1)	74 (5.0)	1,487 (100)
면	1,424 (78.2)	123 (6.8)	121 (6.7)	34 (1.9)	22 (1.2)	97 (5.3)	1,821 (100)

주: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우리나라 가구의 63.6%는 자동차를 1대 이상 가지고 있으며 약 15%의 가구는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율은 읍지역 가구가 가장 높고 면지역이 가장 낮다.

- 면지역은 자동차 보유율은 가장 낮으나, 자동차 보유 가구의 약 1/3이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2대 이상 자동차 보유율은 가장 높다.

표 3-18. 자동차 보유 현황

(단위: 천 가구, %)

	합계	자동차보유				자동차 미보유
		소계	1대	2대	3대 이상	
전국	17,342 (100)	11,025 (63.6)	8,344 (48.1)	2,399 (13.8)	281 (1.6)	6,317 (36.4)
동	14,038 (100)	9,002 (64.1)	6,931 (49.4)	1,878 (13.4)	194 (1.4)	5,036 (35.9)
읍	1,485 (100)	1,034 (69.6)	739 (49.7)	258 (17.3)	38 (2.5)	451 (30.4)
면	1,818 (100)	988 (54.3)	675 (37.1)	264 (14.5)	49 (2.7)	830 (45.7)

주: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2. 기초 생활 인프라의 수준과 수요

-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약 1,468만 호이며, 도시지역에 76.7%가 있고 읍과 면에 9.9%와 13.3%가 분포해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은 84.6%이며 동에서 읍과 면으로 갈수록 주택보급률이 높고, 특히 면은 주택보급률이 107.3%로 가구보다 주택의 수가 많다.

표 3-19. 주택 수 및 주택 보급률

(단위: 천 호, 천 가구, %)

	동	읍	면	전국
총 주택 수	11,263 (76.7)	1,460 (9.9)	1,954 (13.3)	14,677 (100)
일반 가구 수	14,031 (80.9)	1,487 (8.6)	1,821 (10.5)	17,339 (100)
주택보급률	80.3	98.2	107.3	84.6

주: 주택보급률 = 총주택수 / 일반가구수 * 100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지역별 주택의 유형을 보면 동과 읍은 아파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면은 아파트의 비중이 16.5%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인다.
 - 동은 아파트 외에 읍과 면에 비해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다세대 주택의 93.3%가 동에 분포되어 있다.
 - 단독주택 내에서도 동은 다가구 주택이 일반 단독주택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읍과 면에서는 일반 단독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해 단독주택 유형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보인다.

표 3-20. 주택유형별 주택의 분포

(단위: 천 호, %)

		동	읍	면	전국
합계		11,263 (100)	1,460 (100)	1,954 (100)	14,677 (100)
단독주택	소계	2,007 (17.8)	545 (37.3)	1,538 (78.7)	4,089 (27.9)
	일반	921 (8.2)	467 (32.0)	1,457 (74.5)	2,845 (19.4)
	다가구	823 (7.3)	39 (2.6)	25 (1.3)	886 (6.0)
	영업겸용	263 (2.3)	39 (2.7)	56 (2.9)	358 (2.4)
아파트		7,488 (66.5)	765 (52.4)	323 (16.5)	8,576 (58.4)
연립주택		426 (3.8)	73 (5.0)	37 (1.9)	536 (3.7)
다세대주택		1,226 (10.9)	58 (4.0)	30 (1.6)	1,314 (9.0)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16 (1.0)	19 (1.3)	26 (1.3)	161 (1.1)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지역별 주택의 노후도를 보면 2010년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1979년 이전 주택)은 전국적으로 9.7%에 불과하지만, 동의 노후주택 비율은 6.6%인데 비해 읍과 면은 각각 12.7, 27.0%로 매우 높다.
- 도시지역에는 1980~2004년 사이 지어진 주택이 약 77%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주택이 지어진 지 20년이 되지 않은 주택이다.
 - 한편 읍은 2005년 이후 지어진 주택의 비중이 21.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보여 최근 5년 내 지어진 신규주택의 비율이 가장 크다.
 - 면에서는 30년 이상 된 주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점차 최근에 지어진 주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표 3-21. 건축연도별 주택

(단위: 천 호, %)

	동	읍	면	전국
합계	10,806 (100)	1,352 (100)	1,725 (100)	13,884 (100)
2005~2010년	1,643 (15.2)	293 (21.7)	238 (13.8)	2,174 (15.7)
1995~2004년	4,307 (39.9)	526 (38.9)	551 (31.9)	5,384 (38.8)
1980~1994년	4,144 (38.3)	362 (26.8)	470 (27.3)	4,977 (35.8)
1979년 이전	713 (6.6)	171 (12.7)	465 (27.0)	1,349 (9.7)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주거환경을 사용방수와 면적을 통해 살펴보면 국내 가구의 평균 사용방수는 3.7개로 1인당 1.4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25㎡이다.
- 가구의 사용방수와 주거면적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에서 더 많거나 크며, 특히 면에서는 1인당 평균 사용방수가 1.7개, 주거면적은 3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크다.

표 3-22. 사용방수 및 주거 면적

	평균사용방수 (개/가구)	1인당 평균사용 방수 (개/명)	가구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전국	3.7	1.4	67.4	25
동	3.6	1.3	66.3	24.1
읍	3.8	1.4	70.5	26.3
면	4.0	1.7	73.1	31.4

주: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 거주 가구의 사용방수와 면적이 더 크지만 군지역 가구 중에는 최저주거기준² 미달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
- 일반시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11%에 불과하지만 도농복합

2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구조, 성능 등을 설정한 기준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아래와 같다(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90호).

가구원 수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부엌)	14
2	부부	1 DK(식사실겸거실)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주: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거실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시가 약 11.4%이고 군에서는 약 17.6%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크다.

- 일반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면적 기준에서 미달한 가구가 가장 많으나 도농복합시와 군의 경우는 시설 면에서 기준에 미달한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해 지역 간 주거환경의 차이를 보인다.

표 3-2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단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최저주거기준		
		시설	면적	방수
일반시	10.89	3.50	8.01	0.77
도농복합시	11.44	7.71	4.26	0.62
군	17.63	15.14	3.05	0.54

주: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자료: 통계개발원 내부자료 2010년 기준.

- 가구의 식수 이용형태를 보면 전국 가구의 대부분이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읍의 약 96.1% 가구가 상수도를 사용하지만, 면의 상수도 사용률은 85.8%로 아직 상수도 보급되지 않은 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 면의 가구들도 대부분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지만 13.4%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표 3-24. 식수 이용형태별 가구 수

(단위: 천 가구, %)

		동	읍	면	전국
합계		14,038 (100)	1,485 (100)	1,818 (100)	17,342 (100)
상수도설치		13,994 (99.7)	1,427 (96.1)	1,560 (85.8)	16,981 (97.9)
상수도 미설치	소계	45 (0.3)	58 (3.9)	258 (14.2)	361 (2.1)
	생수	3 (0.0)	2 (0.1)	6 (0.3)	11 (0.1)
	약수	3 (0.0)	2 (0.1)	6 (0.3)	10 (0.1)
	지하수	38 (0.3)	54 (3.6)	244 (13.4)	335 (1.9)
	기타	1 (0.0)	1 (0.0)	3 (0.1)	4 (0.0)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상수도에 이어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전국 가구의 90%이상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59.5%로 아직 미흡하며 특히 면의 경우 38.7%로 보급률이 매우 낮다.
 - 특별시·광역시외의 경우 거의 모든 가구에 하수도가 보급되어 있으나 특별시·광역시 내 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74.6%로 도시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 시지역에는 약 90%의 가구에 하수도가 보급되어 있으며 읍에도 80%이상 보급되고 있으나 면의 하수도 보급률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표 3-25. 하수도 보급률

(단위: %)

	시·군 전체	시	군		
			합계	읍	면
전국	90.9	94.2	59.5	82.2	38.7
특별시·광역시	98.9	99.5	74.6	-	-
도 지역	84.3	89.2	57.5	82.2	38.7

자료: 환경부(2012), 하수도 통계.

- 주택의 난방시설을 살펴보면 전국 가구의 84.7%는 개별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개별난방의 대부분이 도시가스 보일러를 주 난방설비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가구의 난방설비를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개별난방 사용가구의 대부분이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아직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기름보일러 사용가구가 많아 지역 간 난방 설비 및 사용 에너지에 큰 차이를 보인다.
 - 특히 면의 경우 절반이상의 가구가 난방설비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이용가구는 전체 이용가구의 10.2%에 불과해 읍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 또한 읍과 면에서는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고 특히 면에서는 전기보일러 사용가구가 16.3%를 차지한다. 이는 심야 전기보일러 보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3-26. 난방시설별 가구 수

(단위: 천 가구, %)

		동	읍	면	전국
합계		14,038 (100)	1,485 (100)	1,818 (100)	17,342 (100)
중앙난방		802 (5.7)	13 (0.9)	5 (0.3)	820 (4.7)
지역난방		1,738 (12.4)	61 (4.1)	37 (2.0)	1,835 (10.6)
개별난방	소계	11,499 (81.9)	1,412 (95.0)	1,776 (97.7)	14,687 (84.7)
	도시가스 보일러	9,522 (67.8)	614 (41.3)	185 (10.2)	10,321 (59.5)
	기름보일러	1,300 (9.3)	451 (30.4)	997 (54.8)	2,748 (15.8)
	프로판가스보일러	271 (1.9)	169 (11.4)	110 (6.0)	550 (3.2)
	전기보일러	295 (2.1)	115 (7.8)	296 (16.3)	705 (4.1)
	연탄보일러	70 (0.5)	39 (2.6)	88 (4.8)	197 (1.1)
	연탄아궁이	5 (0.0)	3 (0.2)	8 (0.4)	16 (0.1)
	재래식 아궁이	3 (0.0)	5 (0.3)	31 (1.7)	39 (0.2)
	기타	33 (0.2)	16 (1.1)	63 (3.5)	112 (0.6)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지역별 도로 보급 현황을 비교하면 일반시는 전체 면적의 6.97%를 도로가 차지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와 군은 3% 내외의 도로비율을 보여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인다.
- 그러나 도로 포장률에서는 일반시 도로의 86.3%가 포장되어 있는 반면 도농복합시와 군은 80%의 내외의 도로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27. 도로 공급 및 포장률

(단위: %)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도로비율	6.97	3.04	2.29
도로 포장률	86.3	78.5	80.0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도로비율은 행정구역 내 지목 중 도로의 면적임.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 한편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소매업이 많을수록 주민들은 가까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어 삶의 질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 인구 대비 생활서비스 종사자 수는 지역에 따라 인구 천 명당 약 70~80명 이나 일반시와 도농복합시가 80명 정도인데 비해 군은 70.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 서비스 공급이 적다.

표 3-28. 생활 서비스 종사자 수

(단위: 명/천 명)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인구 천 명당 생활서비스종사자수	79.4	78.9	70.6

주: 생활서비스종사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소매업 종사자임.

자료: 송미령 등(2012), p.157.

- 지역별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일반시와 도농복합시는 영유아 천 명당 평균 11.8개의 보육시설이 공급되어 있는 반면 군은 평균 8.2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적다.
 - 보육시설의 공급 형태를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급 현황을 통해 보면 일반시와 도농복합시는 전체 보육시설 중 평균 5~6% 내외가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군은 15%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높다.
 - 또한 보육 아동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군에서는 17.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높다.

표 3-29.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 %)

	보육시설 수	평균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국공립	
			평균 보육시설비율	평균 보육아동비율
일반시	8,766	11.8	6.8	12.7
도농복합시	13,953	11.8	5.3	8.1
군	2,474	8.2	15.0	17.5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영유아는 7세 이하 인구임.

주3: 보육시설(아동)비율은 전체 보육시설(아동)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아동)의 비율임.

자료: 안전행정부(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시·도(2012), 통계연보.

-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의료 서비스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과 그 외 병원이 모두 도농복합시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 서비스 공급 현황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병상 수, 의료인력, 의사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군에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

표 3-30. 의료서비스 현황

(단위: 개, 명)

	병원 수		인구 천 명당 의료서비스		
	종합병원	종합병원 외	평균 병상 수	평균 의료인력	평균 의사
일반시	56	10,373	10.7	8.0	2.0
도농복합시	105	13,373	13.0	7.7	1.7
군	17	3,823	11.1	5.5	1.3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합계이며, 의료종사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록사를 포함.

자료: 안전행정부(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시·도(2012), 통계연보.

- 한편 응급의료시설 현황을 보면 농어촌에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가 6개 설치되어 있으나 전문 응급 의료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각각 39개소와 190개소 설치되어 있다.
 -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응급의료시설 공급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군에는 지역응급센터 5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72개소에 불과하다.

표 3-31. 응급의료시설의 지역별 배치 현황

(단위: 개소)

	권역응급 의료센터	전문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합계	21	4	115	323	
도시	15	4	76	136	
농어촌	도농복합시	6	-	34	118
	군	-	-	5	72
	소계	6(28.6%)	0	39(33.9%)	190(58.8%)

주1: 괄호는 각 시설의 총계에서 농어촌 의료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임.

주2: 2011년 12월 31일 기준자료이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12년 8월 기준으로 2개
소로 줄어들었으나, 11월에 권역외상센터로 길병원이 추가 지정됨.

자료: 마상진 등(2012), p.139.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규모 및 인력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에 비해 농어촌 시·군의 응급 의료 기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군은 응급실과 의료 인력에서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 농어촌 지역 내 시·군을 비교해보아도 군은 응급실 면적이 시에 비해 약
60%에 불과하고 의료 인력을 보면 응급의학 전문의는 1명이 채 되지 않
으며, 간호사 수도 시지역의 절반에 불과하다.

표 3-32. 응급의료기관의 평균 응급실 규모 및 인력 현황

	대도시 (162개소)	중소도시 (72개소)	농어촌	
			시 (148개소)	군 (70개소)
응급실 면적(m ²)	181.1	182.9	126.3	83.8
응급실 병상 수(개)	18.3	18.9	14.6	10.7
응급의학 전문의 수(명)	2.2	2.2	1.4	0.3
응급실 전담간호사 수(명)	16.5	15.5	10.2	5.3

자료: 마상진 등(2012), p.140.

- 한편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질문에 주민들은 보건의료시설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밖에 사회복지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공원·유원지를 늘려야한다고 응답하였다.
- 동지역 주민들은 보건의료시설에 이어 국·공립 어린이 집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읍·면 지역 주민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선택하였다.

표 3-33.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단위: %)

	동	읍·면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16.3	11.3	15.4
어린이 놀이터	2.4	2.3	2.4
공원, 유원지	11.2	8.4	10.7
보건의료시설	22.7	30.8	24.1
사회복지시설	19.2	24.2	20.1
공영주차시설	9.8	5.7	9.1
문화예술회관	4.3	5.2	4.5
도서관	6.0	3.1	5.5
체육시설 및 경기장	5.7	5.9	5.7
쓰레기 소각장 등	1.8	2.1	1.9
기타	0.4	1.0	0.5

주: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주거 지역의 범죄위험에 대해 전국 가구의 60% 이상이 불안(‘비교적 불안’과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 또는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은 약 9%에 불과하다.
- 불안하다는 응답이 동에서는 63.9%를 차지한 반면 읍·면에서는 65.3%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34.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도

(단위: %)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전국	0.7	8.4	26.8	43.9	20.3
동	0.6	8.5	27.0	43.3	20.6
읍·면	0.9	8.3	25.5	46.4	18.9

주: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2), 사회조사.

3. 경제 활동

- 본 절에서는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을 소득·일자리·산업구조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특히 지역 경제는 주민의 고용 및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 먼저 지역별 주민의 주관적 소득만족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절반은 현재의 소득에 대해 불만족(‘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지역 주민들의 불만족 비율(49.1%)이 읍·면(48.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차이가 크지 않다.
 - 소득에 대한 만족 비율(‘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은 동지역 주민들이 12.4%로 읍·면(10.8%)지역 주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35. 소득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1.5	10.5	39.0	34.8	14.1
동	1.5	10.9	38.6	34.6	14.5
읍·면	1.7	9.1	40.7	36.0	12.5

주: 19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주민들의 주관적 소비생활 만족도는 불만족 비율(‘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40.6%로 소득 불만족 비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지역별로 보면 동과 읍·면 지역이 거의 비슷한 불만족 비율을 나타냈으나 동지역 주민들은 읍·면 지역 주민에 비해 ‘매우 불만족’의 응답비율이 높다.
 -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비 생활만족도에서도 동지역 주민들은 읍·면 지역 주

민에 비해 불만족 비율과 만족(‘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 응답이 양분된 경향을 보였다.

표 3-36.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2.0	11.6	46.7	29.9	9.7
동	2.0	11.9	46.4	29.6	10.1
읍·면	1.8	10.4	48.4	31.3	8.0

주: 19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지역의 경제활동 상황을 주민의 경제활동상태를 통해 보면 전국적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55.9%)은 ‘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일을 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동(54.9%)에 비해 읍(58.8%)과 면(61.9%)에서 더 높다.

표 3-37.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단위: 천 명, %)

		동	읍	면	전국
15세 이상 인구		32,463 (100)	3,336 (100)	3,893 (100)	39,692 (100)
일하였음	소계	17,827 (54.9)	1,962 (58.8)	2,411 (61.9)	22,200 (55.9)
	주로 일하였음	16,169 (49.8)	1,795 (53.8)	2,181 (56.0)	20,145 (50.8)
	틈틈이 일하였음	1,063 (3.3)	114 (3.4)	178 (4.6)	1,355 (3.4)
	일시 휴직	595 (1.8)	53 (1.6)	52 (1.3)	700 (1.8)
일하지 않았음		14,636 (45.1)	1,374 (41.2)	1,482 (38.1)	17,491 (44.1)

주: 경제활동상태는 조사시점 기준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가 조사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한편 시·군 지역별 고용상황을 보면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중 약 60%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66.3%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고용률은 일반시가 가장 낮고 도농복합시와 군으로 갈수록 높아지며 실업률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38.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일반시	58.1	56.2	3.1
도농복합시	60.5	59.4	1.9
군	66.3	65.6	1.0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주3: 군에 광역시 내 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통계청(2013), 지역별 고용조사 2013년 상반기.

- 주민들이 느끼는 고용안정성을 보면 전국 주민의 약 60%가 고용에 대해 불안(‘약간 불안함’과 ‘매우 불안함’)하다고 느끼고 있다. 고용에 대한 불안 비율은 동지역(63%) 주민들이 읍·면 지역(47%)에 비해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동지역 주민의 20%이상이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39. 고용 안정성

(단위: %)

	매우 불안함	약간 불안함	별로 불안하지 않음	전혀 불안하지 않음
전국	19.2	40.6	31.1	9.1
동	20.5	42.5	29.8	7.2
읍·면	13.9	33.1	36.4	16.6

주: 19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지역별 근로자의 임금 만족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3.1%가 불만족(‘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39.7%)에 비해 동지역(43.7%) 주민들의 불만족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읍·면지역 주민들에서는 만족(‘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의 비율이 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3-40. 임금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2.9	13.4	39.6	30.7	12.4
동	2.8	13.5	39.0	31.1	12.6
읍·면	3.4	12.7	43.5	28.2	11.5

주1: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주2: 무응답 비율을 표기하지 않아 지역별 비중의 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직장을 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에 대해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어서’라는 응답이 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 ‘희망하는 임금 수준과 맞지 않아서’(22.4%)와 ‘희망하는 근로시간 보다 길어서’라는’(11.6%)답변이 많았다.
 - 반면 읍·면에서는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아서’(18.3%)와 ‘희망하는 근로시간보다 길어서’(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표 3-41. 직장을 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동	읍·면	전국
합계	100	100	100
구직활동을 하였음	11.0	8.7	10.7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어서	41.5	44	41.8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아서	23.0	18.3	22.4
희망하는 근로시간보다 길어서	11.3	14.4	11.6
희망하는 근로시간보다 짧아서	0.8	0.4	0.7
나의 이력이 희망하는 일자리보다 높아서	6.6	5.0	6.4
나의 이력이 희망하는 일자리보다 낮아서	10.4	11.4	10.5
신체장애 및 질환	2.7	3.4	2.8
기타	3.8	3.2	3.7

주: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지역별 사업체 규모와 형태를 비교해 보면 동에 비해 면에 있는 사업체들이 평균 종사자 수가 많고 회사 외 법인의 비중이 가장 크다.
- 사업체의 형태를 보면 동과 읍에서는 개인 사업체가 약 8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면은 75.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작다. 읍·면을 비교해보면 읍에서는 개인사업체 비중이 크고, 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형태의 사업체 비중이 크다.

표 3-42. 사업체 수 및 형태별 비율

	평균 종사자수 (명)	사업체 형태별 비율(%)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회사 외 법인	비법인
전국	5.2	82.7	11.1	2.7	3.5
동	5.2	83.6	11.2	2.1	3.2
읍	4.9	83.0	9.3	3.8	3.9
면	5.6	75.1	11.9	7.3	5.8

자료: 통계청(2011), 전국사업체조사.

- 지역의 일자리 수를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농가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로 구분해 보면³ 동은 대부분의 종사자가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읍·면 지역은 그 비중이 작고 면지역은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60.2%로 가장 낮다.
- 일자리 수의 증감률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사업체 종사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읍·면에서 농업 종사자는 큰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면에서는 종사자가 30%이상 감소하였다.
 - 2000~2011년 간 읍·면에서 사업체 종사자가 각각 36.0%, 32.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종사자가 27.7%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표 3-43. 사업체 및 농업종사자 수

	2011년			2000~2011년 증감률		
	소계	사업체 종사자수	농업 종사자수	소계	사업체 종사자수	농업 종사자
전국	19,939 (100)	18,093 (90.7)	1,846 (9.3)	24.5	33.0	-23.4
동	14,990 (100)	14,691 (98.0)	299 (2.0)	32.1	32.8	6.1
읍	1,897 (100)	1,565 (82.5)	332 (17.5)	-34.4	36.0	-14.1
면	3,052 (100)	1,836 (60.2)	1,215 (39.8)	71.9	32.2	-30.2

주: 농업종사자수는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 주종사분야가 농업인 인구임.

자료: 통계청(2000, 2011),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2000, 2010), 농림어업총조사.

3 지역별 종사자를 사업체와 농업종사자로 나누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업체 조사인 ‘전국 사업체조사’에는 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농가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사자’의 용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업체 종사자와 농업 종사자를 합하여 ‘일자리 수’로 표현하였다.

- 지역별 일자리 구성을 산업 대분류를 통해 보면 동에서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읍은 제조업, 면은 농·임·어업의 비중이 크다.
- 동에서 읍과 면으로 갈수록 농·임·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커지고 반면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업의 비중은 작아진다.

표 3-44. 산업대분류별 일자리 비율

(단위: 천 명, %)

산업 대분류		동	읍	면	전국
총 일자리 수(천명)		14,990	1,897	3,052	1,878
산업별 비중	농·임·어업 ¹⁾	2.1	17.9	40.2	9.4
	광업	0.0	0.2	0.3	0.1
	제조업	15.1	25.0	27.9	18.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0.3	0.6	0.4	0.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0.3	0.5	0.5	0.4
	건설업	6.4	4.8	2.3	5.6
	도·소매업	15.5	10.2	5.2	13.4
	운수업	5.7	3.8	2.3	5.0
	숙박·음식점업	10.0	8.4	6.0	9.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3.1	0.7	0.3	2.4
	금융·보험업	4.4	1.8	0.8	3.6
	부동산·임대업	2.7	1.3	0.6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1	1.2	0.6	4.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5.0	1.7	0.7	4.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3.3	4.5	1.8	3.2
	교육서비스업	8.0	6.3	3.8	7.2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6.4	5.4	2.7	5.7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8	1.7	1.3	1.7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4.9	3.9	2.3	4.4

주: 농림어업에는 농업종사자(15세 이상 농가인구 중 주종사분야가 농업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2011),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의 비중을 보면 28.8%는 종사자가 1~4명인 소규모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동에서는 종사자가 1~4명인 영세 사업체와 100명 이상의 사업체 비중이 읍·면에 비해 크고, 이와 반대로 읍·면에서는 종사자 10~99명 사이 사업체의 비중이 크다.

표 3-45.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천 명, %)

종사자규모	동	읍	면	전국
합계	14,691 (100)	1,565 (100)	1,836 (100)	18,093 (100)
1~4명	4,250 (28.9)	484 (30.9)	478 (26.0)	5,212 (28.8)
5~9명	1,689 (11.5)	176 (11.3)	203 (11.1)	2,068 (11.4)
10~19명	1,545 (10.5)	174 (11.1)	250 (13.6)	1,969 (10.9)
20~49명	1,876 (12.8)	250 (16.0)	342 (18.6)	2,469 (13.6)
50~99명	1,440 (9.8)	167 (10.7)	192 (10.4)	1,799 (9.9)
100~299명	1,642 (11.2)	134 (8.6)	199 (10.8)	1,976 (10.9)
300~499명	535 (3.6)	54 (3.5)	46 (2.5)	636 (3.5)
500~999명	666 (4.5)	47 (3.0)	40 (2.2)	753 (4.2)
1000명이상	1,048 (7.1)	79 (5.0)	86 (4.7)	1,212 (6.7)

자료: 통계청(2011), 전국사업체조사.

- 전국의 사업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6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에 비해 읍·면에서 상용 종사자의 비중이 크고 자영업자의 비중은 작다.

표 3-46.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단위: 천 명, %)

종사자 지위	동	읍	면	전국
합계	14,691 (100)	1,565 (100)	1,836 (100)	18,093 (100)
상 용	9,087 (61.9)	983 (62.8)	1,275 (69.4)	11,345 (62.7)
임시 및 일용	1,923 (13.1)	184 (11.8)	190 (10.3)	2,297 (12.7)
자영업자	2,372 (16.1)	266 (17.0)	246 (13.4)	2,884 (15.9)
무급가족	563 (3.8)	84 (5.4)	91 (5.0)	738 (4.1)
기타	747 (5.1)	48 (3.1)	34 (1.9)	829 (4.6)

자료: 통계청(2011), 전국사업체조사.

- 2009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약 203.7만 원이며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임금이 가장 많고, 이어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많다. ‘임시’, ‘일용’,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앞서 두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 크게 적다.
 - 동일한 근로 형태에서 지역별 임금을 보면 읍·면 지역 종사자에 비해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많으며, 특히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동의 고용주가 읍·면 고용주에 비해 월 임금이 80만 원이 더 많다.

표 3-47.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근로형태		동	읍	면	전국
합계		212.4	184.6	142.9	203.7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240.2	218.3	189.9	235.9
	임시근로자	113.8	110.4	107.7	113.1
	일용근로자	119.6	109.3	93.9	115.8
비임금 근로자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355.2	324.9	271.3	347.3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81.3	148.9	117.2	163.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취업자들의 근무기간을 비교해 보면 동지역 취업자의 약 20%가 근무한지 1년 미만의 취업자인 반면 읍에서는 약 17%, 면에서는 10.9%이다. 특히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동에서는 11.9%인데 비해 읍에서는 19.9%, 면에서는 41.4%를 차지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표 3-48. 취업자의 근무기간

(단위: 천 명, %)

	동	읍	면	전국
취업인구(15세 이상)	17,827 (100)	1,962 (100)	2,411 (100)	22,200 (100)
6개월 미만	1,915 (10.7)	185 (9.4)	142 (5.9)	2,242 (10.1)
6개월~12개월 미만	1,545 (8.7)	147 (7.5)	121 (5.0)	1,813 (8.2)
1년~3년 미만	3,227 (18.1)	303 (15.5)	258 (10.7)	3,789 (17.1)
3~5년 미만	2,373 (13.3)	231 (11.8)	206 (8.5)	2,809 (12.7)
5~10년 미만	3,204 (18.0)	327 (16.6)	290 (12.0)	3,821 (17.2)
10~15년 미만	2,141 (12.0)	234 (11.9)	229 (9.5)	2,604 (11.7)
15~20년 미만	1,300 (7.3)	145 (7.4)	165 (6.8)	1,610 (7.3)
20년 이상	2,123 (11.9)	390 (19.9)	999 (41.4)	3,512 (15.8)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취업자들의 직업을 보면 동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읍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한편 면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46.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크다.

표 3-49. 취업자의 직업분포

(단위: 천 명, %)

	동	읍	면	전국
취업자(15세 이상)	17,827 (100)	1,962 (100)	2,411 (100)	22,200 (100)
관리자	574 (3.2)	31 (1.6)	19 (0.8)	624 (2.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860 (21.7)	265 (13.5)	181 (7.5)	4,305 (19.4)
사무 종사자	3,164 (17.7)	276 (14.1)	168 (7.0)	3,608 (16.3)
서비스 종사자	1,852 (10.4)	188 (9.6)	169 (7.0)	2,210 (10.0)
판매 종사자	2,371 (13.3)	193 (9.9)	133 (5.5)	2,697 (12.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0 (1.5)	299 (15.3)	1,116 (46.3)	1,676 (7.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3 (9.3)	173 (8.8)	134 (5.6)	1,960 (8.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186 (12.3)	299 (15.2)	223 (9.2)	2,708 (12.2)
단순노무 종사자	1,853 (10.4)	222 (11.3)	253 (10.5)	2,328 (10.5)
기타	50 (0.3)	14 (0.7)	16 (0.6)	79 (0.4)
미상	4 (0.0)	1 (0.0)	1 (0.0)	5 (0.0)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전국 12세 이상 인구 중 약 2/3가 통근·통학을 하고 있으며 약 절반은 거주 동·읍·면에서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 읍과 면지역 통근·통학자의 각각 69.3%, 78.0%가 거주 읍·면에서 통근·통학을 하는 반면 동에서는 41.5%만이 거주 동에서 통근·통학하고 있으며, 동지역 통근·통학자의 38.5%는 다른 시·군·구로 통근·통학하고 있다.

표 3-50. 통근·통학 유형별 인구

(단위: 천 명, %)

통근·통학 유형		동	읍	면	전국	
12세 이상 인구		34,112 (100)	3,511 (100)	4,024 (100)	41,647 (100)	
통근·통학 안함		10,799 (31.7)	1,086 (30.9)	1,264 (31.4)	13,148 (31.6)	
통학함	소계	23,314 (68.3)	2,425 (69.1)	2,760 (68.6)	28,499 (68.4)	
	거주 시군구	읍면동 내*	9,669 (41.5)	1,680 (69.3)	2,153 (78.0)	13,503 (47.4)
		다른 읍면동*	4,550 (19.5)	271 (11.2)	282 (10.2)	5,103 (17.9)
	다른 시군구	같은 시도*	6,032 (25.9)	278 (11.4)	199 (7.2)	6,508 (22.8)
		다른 시도*	2,934 (12.6)	186 (7.7)	116 (4.2)	3,236 (11.4)
	미상*		128 (0.5)	10 (0.4)	10 (0.4)	148 (0.5)

주: *가 표시된 행의 괄호는 '통학함' 인구 내에서 각 유형별 비율임.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 형태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지역별로 보면 일반시와 도농복합시는 ‘환경’ 분야에 이어 ‘문화·예술·관광·운동’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많은 반면 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다소 많다.

표 3-51. 분야별 사회적 기업

(단위: 개, %)

유형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합계	151 (100)	247 (100)	111 (100)
환경	33 (21.9)	49 (19.8)	19 (17.1)
문화, 예술, 관광, 운동	22 (14.6)	30 (12.1)	10 (9.0)
사회복지	17 (11.3)	28 (11.3)	12 (10.8)
간병, 가사지원	12 (7.9)	16 (6.5)	9 (8.1)
교육	10 (6.6)	7 (2.8)	3 (2.7)
보육	4 (2.6)	11 (4.5)	1 (0.9)
보건	5 (3.3)	2 (0.8)	
산림보전 및 관리			1 (0.9)
기타	48 (31.8)	104 (42.1)	56 (50.5)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2013. 11. 14. 다운로드)

4. 보건·복지

- 보건과 복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지역별 보건과 복지 현황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 우선 지역별 주민의 건강수준을 보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 즉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 주민들의 건강수준 인지율이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와 군일수록 인지율이 낮다.
 -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은 일반시에서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와 군일수록 낮다.
 - 반대로 비만율과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군에서 가장 높고 도농복합시와 일반시일수록 낮다.

표 3-52. 주민의 건강수준

(단위: %)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5.1	41.4	40.1
흡연율	24.2	24.0	23.3
비만율	24.3	25.3	25.0
고위험 음주율	17.7	16.8	16.0
스트레스 인지율	29.5	27.1	24.5
우울감 경험률	5.6	4.9	4.3
십만 명당 자살률	26.7	32.3	41.2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임.

주3: 흡연율: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분율임.

주4: 비만율: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단 자기 기입 수치임.

주5: 고위험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임.

주6: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임.

주7: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임.

주8: 자살률은 인구 십만 명당 사망원인이 고의적 자해(자살)(X60-X84)인 사망자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2012), 사망원인통계.

- 지역별 법정 전염병 발생 건수를 보면 인구 만 명당 발생 건수는 일반시가 가장 많고, 도농복합시와 군일수록 적다. 특히 일반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1군 전염병 발생 비율이 가장 크고 군에 비해 약 2배이다.
- 일반시는 1군에 비해 2군과 3군 전염병 발생 비율이 낮으나 도농복합시와 군은 3군 전염병에 비해 2군 전염병 발생비율이 높다.

표 3-53. 전염병 발생건수

	전염병 발생건수와 비율(건, %)			
	인구 만 명당 발생건수	1군 전염병	2군 전염병	3군 전염병
일반시	18.66	1,552(8.8)	7,456(42.5)	8,541(48.7)
도농복합시	17.00	1,188(5.2)	13,182(57.3)	8,625(37.5)
군	15.07	337(4.5)	3,691(49.0)	3,509(46.6)

주: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보건기관인 보건(지)소의 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시의 의료 인력은 인구 만 명당 1.01명인데 비해 도농복합시는 1.91명으로 많고, 군은 5.91명이다. 이는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의 인구밀도가 낮아 인구대비 보건(지)소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군에 보건(지)소의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고령인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은 일반시에서는 92명, 도농복합시에서는 81명인데 비해 군은 45명으로 매우 적다.

표 3-54. 보건 의사 및 장기요양 전문 인력

	인구 만 명 당 보건(지)소의 의사 수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수
일반시	1.01	92
도농복합시	1.91	81
군	5.91	45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은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 치료사, 영양보호사.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지역별 의료서비스 여건을 면적으로 대비해 보면 일반시는 같은 면적 내에 많은 병원과 약국이 있기 때문에 더 접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 1km²내에 일반시는 병원과 약국이 각각 5.38개와 1.92개가 있으나 도농복합시에는 0.41개와 0.16개에 불과하며 특히 군에는 병원은 0.09개, 약국은 0.04개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3-55. 병원 및 약국 밀도

(단위: 개/km²)

	병원 밀도	약국 밀도
일반시	5.38	1.92
도농복합시	0.41	0.16
군	0.09	0.04

주1: 병원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이며 약국에는 한약국이 포함되어 있음.

주2: 밀도는 (병원(약국)수 / 총행정구역 면적)임.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미치료율’을 통해 보면, 2010~2013년 간 미치료율은 동과 읍·면에서 모두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 동에 비해 읍·면에서 미치료율이 높다. 2012년 읍·면 지역의 미치료율은 18.0%로 동의 2010년 수준에 불과하다.

표 3-56. 연간 미 치료율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동	18.7	17.9	16.4
읍·면	26.2	22.0	18.0

주1: 연간 미 치료율이란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은 때 가지 못한 비율임.

주2: 만 19세 이상 인구의 응답 결과이며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 또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대비 취약계층이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에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수는 군이 일반시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도 군이 일반시에 비해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군의 방문건강관리등록가구가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등록가구 당 방문횟수는 오히려 적다.

표 3-57. 취약계층 현황

(단위: 명, 가구, 건)

	인구 만 명당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 당 방문건수
	기초생활 수급자수	소년소녀가 장세대원수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가구원수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	
일반시	200	0.27	119	229	5.0
도농복합시	347	0.30	88	400	4.5
군	467	0.67	67	828	4.8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 당 방문건수 = 방문건수 / 등록가구수.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 또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인구를 위한 복지 시설로서 노인복지 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 천 명당 복지시설 수는 군지역이 2.12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그러나 복지시설의 91.9%가 경로당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 의료, 재가 복지 시설은 부족하다.
- 모든 지역에서 노인 복지시설의 대부분을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복합시와 군은 경로당을 제외하면 노인 복지 시설의 수와 다양성이 일반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표 3-58. 노인복지시설

(단위: 개, %)

	노인 천 명 당 복지시설 수	노인 복지시설 수					
		합계	여가		주거	의료	재가
			경로당	경로당 외			
일반시	1.77	6,158	4,801 (78.0)	144 (2.3)	59 (1.0)	741 (12.0)	413 (6.7)
도농 복합시	1.72	25,766	22,934 (89.0)	441 (1.7)	169 (0.7)	1,313 (5.1)	909 (3.5)
군	2.12	26,892	24,710 (91.9)	290 (1.1)	113 (0.4)	839 (3.1)	940 (3.5)

주1: 인구(노인)대비 복지시설 수는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임.

주3: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 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 이와 같이 군에 취약계층과 고령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낮다.

표 3-59. 복지예산 비중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일반회계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28.0	22.0	15.3

주: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안전행정부(2012), 지방재정연감.

-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39.4%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선택하였고 이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필요한 서비스로 응답하였다.
 - 동에서는 읍·면에 비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와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 서비스’의 비중이 큰 반면 읍·면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동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60.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단위: 개, %)

	동	읍·면	전국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39.4	39.5	39.4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 서비스	15.6	12.6	15.1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16.5	20.0	17.1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18.4	17.6	18.3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4.8	3.6	4.6
장애인(아동)돌봄 및 재활서비스	3.3	3.5	3.4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1.7	2.7	1.9
기타	0.2	0.4	0.3

주: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에 대해 고령인구는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이어 ‘간병서비스’, ‘가사서비스’, ‘취업알선’의 순이었다. 동에서는 읍·면에 비해 ‘건강검진’과 ‘취업알선’의 비중이 큰 반면 읍·면에서는 ‘간병서비스’, ‘가사서비스’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표 3-61. 고령인구의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

(단위: 개, %)

	동	읍·면	전국
간병서비스	23.4	26.2	24.1
목욕서비스	1.8	2.7	2
가사서비스	16.3	20.8	17.5
식사제공	3.8	4.2	3.9
이야기 상대	2.2	2.4	2.3
취업알선	11.9	6.9	10.6
건강검진	31.3	29.8	30.9
취미·여가 프로그램	7.9	5.8	7.3
정보화 등 각종 교육	1.2	0.8	1.1
기타	0.2	0.4	0.3

주: 고령인구는 60세 이상 인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5. 교육 여건

- 지역의 교육 여건을 비교하기 위해 우선 지역별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군의 학교들이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학교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모두 적다.
- 군지역 초등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159명으로 도농복합시의 절반, 일반시의 약 1/5 수준이며, 고등학교 학생 수도 크게 적다.

표 3-62. 학교 급별 현황

(단위: 명)

	학교 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시	714	865	1,071	18	17	15
도농복합시	394	499	714	15	16	14
군	159	190	319	10	11	11

주: 학교(교원) 당 학생 수는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연보.

- 초등학생 수의 감소로 읍·면에서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비율이 전체 초등학교의 약 1/3에 이르고 있다.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745개이며 이 중 대부분은 2개 학년의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동의 복식학급 학교는 53개(1.7%)이며 읍·면과 달리 3~6개 학년의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 가까이 된다.

표 3-63. 복식학급 초등학교 수

(단위: 개, %)

	복식학급 학교수	2개학년	3개학년	4개학년	5개학년	6개학년	복식학교 비율
동	53	28	10	10	3	2	1.7
읍·면	745	742	3	0	0	0	28.6

주: 복식학급은 초등학교만 있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조사(농촌진흥청(2008),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p.92, 재인용).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약 2천여 개가 있으며 이 중 일반고(66.4%)가 가장 많고 이어 특성화고(21.7%)의 비중이 크다. 대도시는 일반고의 비중이 가장 작고 특성화고의 비중이 크고,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자율고의 비중이 크다. 읍·면의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의 비율이 25.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크다.

표 3-64. 유형별 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 %)

	합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국	2,303(100)	1,529(66.4)	128(5.6)	499(21.7)	147(6.4)
대도시	814(100)	481(59.1)	58(7.1)	178(21.9)	97(11.9)
중소도시	799(100)	578(72.3)	41(5.1)	144(18.0)	36(4.5)
읍·면	690(100)	470(68.1)	29(4.2)	177(25.7)	14(2.0)

주1: 특수목적고는 과학, 외국어, 국제, 예술, 체육계열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임.

주2: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임.

주3: 자율고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2), 유초중등통계.

-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13세 이상 학생의 약 43%가 만족(‘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에 비해 읍·면 학생들의 만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65.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8.6	34.2	43.7	10.6	2.9
동	8.5	34.0	43.5	10.9	3.1
읍·면	8.9	35.5	44.9	8.9	1.8

주: 13세 이상 재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학생들은 학교 시설에 대해 약 24%가 불만족(‘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였고 동에 비해 읍·면 지역 학생들의 불만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66.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7.7	25.8	42.6	18.1	5.7
동	7.6	25.5	43.1	18.0	5.8
읍·면	8.2	28.0	39.3	19.2	5.4

주: 13세 이상 재학생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지역별 공공도서관 공급 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수나 좌석 수는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서관 규모(평균 연면적)는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의 약 1/3 수준으로 작다.

표 3-67. 공공도서관 현황

지역구분	도서관수	평균연면적 (㎡)	인구십만명당 공공도서관수	인구십만명당 좌석 수	연간 1인당 도서관 방문 수
일반시	124	3,991	1.7	900	7.7
도농복합시	270	2,580	2.4	809	5.2
균	151	1,318	3.8	897	3.1

주1.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이며, 어린이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음.

주2: 연간 1인당 도서관 방문 수 = 연간 도서관 방문자수 / 총인구수.

자료: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2011), 공공도서관현황(<http://www.libsta.go.kr>, 2013. 11. 21).

-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98.4%의 행정리가 약 30분 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3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행정리의 비율은 줄어든다.

표 3-68. 농어촌의 교육시설 소요시간별 행정리 수

(단위: 개, %)

	30분내 도달 행정리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 농어촌	32,752 (98.1)	32,830 (98.4)	33,838 (97.1)	30,016 (87.5)

주: 괄호는 각 학교를 이용하는 총행정리에서 30분내 도달 가능한 행정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지역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들의 우수학력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중소도시와 읍·면의 순이다. ‘사회’를 제외한 4개 과목에서 모두 읍·면 학생들의 우수학력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으며 초등학교 6년 기준으로 영어 과목의 격차가 가장 크다.
- 또한 모든 과목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소도시와 읍·면 간 우수학력 비율의 격차가 커진다.

표 3-69. 학년별 학업성취도 평가 우수학력 비율

(단위: %)

과목	학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국어	초6	42.7	40.1	37.6
	중3	32.2	31.4	26.3
	고2	34.7	33.1	25.4
영어	초6	74.1	70.6	65.0
	중3	35.9	31.9	21.3
	고2	35.9	31.9	21.8
수학	초6	23.7	20.3	18.5
	중3	23.1	20.6	12.8
	고2	25.9	21.7	15.9
과학	초6	44.6	42.4	43.1
	중3	18.1	17.3	15.3
사회	초6	17.7	16.5	17.7
	중3	14.5	14.9	14.1

주: 학업성취 수준은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로 나누며 표는 '우수학력'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2012),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분석.

- 공교육에 이어 지역별 사교육의 공급 차이를 사설학원을 통해 보면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가 일반시와 도농복합시는 3.9개이나 군은 2.4개로 크게 못미치고 있다.

표 3-70. 사설학원 수

구 분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개소/천 명)	3.9	3.9	2.4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 또한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낮다. 우리나라 학생의 평균 69.4%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광역시와 중소도시 학생이 약 70%인데 비해 읍·면은 58%이다.

표 3-71. 사교육 참여율

(단위: %)

과목 및 유형	평 균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사교육 참여	69.4	70.8	70.3	58.0
일반교과	58.6	59.8	59.6	46.4
예체능, 취미	30.9	31.0	30.8	27.3
취업관련	0.5	0.6	0.5	0.3

자료: 통계청(2012), 사교육비조사.

- 방과 후 학교 참여율에서는 대도시가 48.0%, 중소도시가 42.1%인데 비해 읍·면은 37.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낮으며, 그 외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읍·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2.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과목 및 유형	대도시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방과 후 학교	48.0	42.1	37.7
초등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1.2	1.0	1.0
특기적성 프로그램	21.4	19.4	16.5
교과 프로그램	30.4	25.0	24.5

자료: 통계청(2012), 사교육비조사.

- 한편 대학 진학률은 일반시에 비해 도농복합시와 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가 적고, 그 규모도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작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의 대학들이 많다.

표 3-73. 대학교 진학률 및 학교 현황

(단위: 개, 명)

	대학 진학률(%)	대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졸업자 수	교원1인당 학생 수
일반시	79	28	214,089	6,602	35,740	32.4
도농복합시	86	92	659,520	22,787	120,945	28.9
군	85	24	85,647	2,409	14,115	35.6

주1: 대학진학률은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주2: 대학진학률 = 진학자수 / 졸업자수 *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연보; 안전행정부(2009), 한국도시통계.

- 최근 주민의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평생 교육 기관의 현황을 보면 전국에는 약 3,600여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으며 군에는 약 5.5%인 199개가 있다.
 - 평생학습 대상자 대비 평생교육서비스 현황을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평생학습 대상자 만 명당 기관이 15.7개와 10.4개가 있는 반면 농어촌은 8.6개에 불과하고, 교·강사 수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표 3-74. 평생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지역	평생학습 대상자(천명)	평생교육 기관수	평생학습 대상자 십만 명당	
			기관수	교·강사 수
대도시	13,102	2,053	15.7	207.8
중소도시	12,870	1,339	10.4	121.8
농어촌	2,313	199	8.6	43.6
합계	28,285	3,591	12.7	155.2

주: 평생학습 대상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임.

자료: 마상진 등(2012), p.26을 재구성.

- 2007~2011년 까지 지역별 평생교육기관의 변화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평생교육기관이 약 1.6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농어촌은 61개만 증가하여 평생 교육기관의 공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했다.

표 3-75. 지역규모 및 연도별 평생 교육 기본 개황

(단위: 개, 명)

연도	기관	프로그램	교·강사	사무직원	
대도시	2011	2,053	121,390	27,230	11,126
	2007	1,278	63,458	8,237	4,683
중소 도시	2011	1,339	57,350	15,671	4,848
	2007	805	35,554	5,489	2,240
농어촌	2011	199	4,104	1,008	772
	2007	138	1,977	270	291

자료: 마상진 등(2012), p.27을 재구성.

- 평생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수를 보면 농어촌지역은 약 3천여 개에 불과하며 대도시가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문화예술에 치우쳐 있다.

표 3-76. 평생교육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

지역규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비율					
		학력 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독	직업 능력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대도시	101,649	38.1	0.4	29.3	11.9	20.3	0.1
중소도시	37,712	13.7	0.8	20.9	15.6	48.7	0.2
농어촌	3,415	12.3	2.7	19.4	25.2	40.2	0.3
합계	142,776	31.0	0.6	26.8	13.2	28.3	0.1

자료: 마상진 등(2012), p.28을 재구성.

6. 문화·여가 생활 여건

- 주민의 문화·여가 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지역별 여가 활동의 만족도를 보면 13세 이상 국민의 약 1/4이 여가생활에 불만족(‘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 비율은 동에 비해 읍·면 주민들이 더 높다.

표 3-77. 여가 활동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국	6.6	20.4	47.8	18.9	6.2
동	6.8	21.0	47.6	18.5	6.2
읍·면	5.9	17.9	48.9	21.0	6.3

주: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2010~2013년 간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의 변화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35%가 좋아졌다고(‘약간 좋아짐’과 ‘많이 좋아짐’) 응답하였다. 읍·면 지역에서는 나빠졌다는(‘약간 나빠짐’과 ‘많이 나빠짐’) 응답 비율이 동에 비해 낮았다.

표 3-78.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의 변화

(단위: %)

	많이 좋아짐	약간 좋아짐	변화없음	약간 나빠짐	많이 나빠짐
전국	5.2	30.4	50.5	10.3	3.6
동	5.4	30.4	49.7	10.7	3.9
읍·면	4.2	30.9	53.8	8.5	2.6

주: 19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지역별 주민들의 여가시간은 중소도시가 가장 길고, 대도시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비용은 읍·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적으나 여가 비용 충분도는 대도시에서 가장 낮다.

표 3-79. 여가시간 및 비용 현황

	평일 평균 여가시간	휴일 평균 여가시간	여가 비용	
			월 평균(천 원)	충분도(%) ¹⁾
대도시	3.1	5.0	136	14.6
중소도시	3.4	5.3	126	20.9
읍·면	3.5	4.9	96	18.0

주: 여가 비용 충분도는 월평균 여가 비용이 조사 응답자 중 '충분했다'와 '매우 충분했다'로 응답한 비율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 주민들의 주요 여가활동은 모든 지역에서 TV시청이 가장 많고,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TV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으로 응답하였다.

표 3-80. 여가 활동 순위

(단위: %)

	1위	2위	3위	4위	5위
대도시	TV시청 (45.1)	산책 (7.5)	인터넷 검색/ SNS 등 (7.2)	등산 (4.1)	게임 (4.0)
중소도시	TV시청 (44.0)	인터넷 검색/ SNS 등 (8.8)	산책 (4.7)	게임 (4.2)	등산 (3.7)
읍·면	TV시청 (55.6)	산책 (5.7)	인터넷 검색/ SNS 등 (3.9)	낮잠 (3.3)	게임 (2.8)

주: 괄호는 응답률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모든 지역에서 약 절반이 ‘여행’을 선택하였으며 이어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응답하였다.

표 3-81.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단위: %)

	동	읍·면	전국
TV 및 DVD시청	5.6	7.4	5.9
여행	46.8	47.4	46.9
문화예술 관람	9.4	7.2	9.0
스포츠관람	2.5	2.1	2.5
스포츠활동	8.7	6.8	8.4
창작적 취미	4.6	3.3	4.3
자기 개발	6.6	4.6	6.3
종교 활동	3.4	4.3	3.5
휴식	3.6	5.0	3.8
사교 관련일	4.7	7.2	5.2
기타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봉사활동, 가사 등)	4.1	4.9	4.2

주: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 경험률을 보면 국민의 67.1%가 지난 1년 간 국내 여행을 한 적이 있으며, 17.2%는 해외여행을 경험하였다.
 - 동지역 주민들은 연간 국내여행을 3.2회 다니나, 읍·면 지역 주민들은 2.6회로 더 적게 다닌다.
 - 해외여행 목적을 보면 관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업무 목적의 해외여행이 많다.

표 3-82. 국내외 여행 경험률

		동	읍·면	전국	
국내 관광여행	지난 1년 간 경험률(%)	67.8	64.1	67.1	
	1인당 여행횟수(회/년)	3.2	2.6	3.1	
해외여행	지난 1년 간 경험률(%)	18.2	12.6	17.2	
	여행목적별 비중 (%)	관광	76.9	78.7	77.1
		가사	10.8	11.0	10.8
		업무	17.9	13.0	17.3
교육		5.1	5.6	5.2	

주1: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주2: '가사'에는 가족 및 친지방문, '교육'에는 어학연수 목적 여행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 한편 읍·면 주민의 예술행사 관람횟수나 문화예술공간 이용횟수는 연간 약 3~4회 정도이나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5~6회 이상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3. 연간 문화예술 향유 현황

	예술행사 관람횟수	문화예술공간 이용횟수	축제관람횟수
대도시	5.1	6.5	1.9
중소도시	5.1	5.4	2.0
읍·면	3.7	3.1	2.0

주1: 예술행사는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임.

주2: 연간 이용(관람) 횟수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 교육은 지역의 문화역량 및 유·아동과 청소년의 적성을 파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 경험을 보면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으며 읍·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험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4.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유·아동기(%)	청소년기(%)
대도시	13.5	12.0
중소도시	17.5	15.4
읍·면	12.1	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주민들이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의 인구 대비 공급 수는 문화기반시설, 마을체육시설, 공원조성 면적 모두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에 더 많이 공급되어 있다.
 - 군은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의 공급수준을 인구수에 비교할 경우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더 많은 시설이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불편하고 군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따라서 시설의 공급 수준 평가는 시설의 수와 면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이용 접근성과 이용률 등 실제 주민들의 이용현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3-85. 문화·여가 시설 현황

구 분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개소/천 명)	0.04	0.06	0.13
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개소/천 명)	0.3	0.3	0.7
인구 1인당 공원조성면적(m ² /인)	15.1	19.5	22.1

- 주1: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지방문화원이 포함되어 있음.
 주2: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기타공원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통계청(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 축제는 지역 홍보와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크게 증가한 지역 축제는 연간 약 481개가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 중 223개(46.4%)가 군에서 이루어지고 217개(45.1%)는 도농복합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86. 지역축제 현황

(단위: 개)

시도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합계
기장군			3	3
달성군			1	1
강화·옹진군			13	13
울주군			3	3
경기도	27	36	10	73
강원도	10	25	43	78
충청북도			6	6
충남		39	24	63
전라북도	2	21	24	47
전남	2	6	30	38
경북		20	23	43
경남		42	43	85
제주특별자치도		28		28
합계	41	217	223	481

주: 광역시는 군지역의 지역축제만 나타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 시·도별 축제총괄표.

7. 환경

-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 만족도를 보면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 중 녹지에 대한 만족(‘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응답률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기(40.1%), 수질(36.9%), 토양(33.5%)의 순으로 만족률이 높고, 소음·진동의 만족률이 29%로 가장 낮았다.
- 한편 동지역 주민들은 만족률이 가장 높은 녹지가 40.9%인데 비해 읍·면 지역 주민들은 모든 부문에서 만족률이 50%를 넘었으며, 대기의 만족률이 67.4%로 가장 높았다.
- 읍·면지역에서 만족률은 대기에 이어 수질(59.8%), 녹지(57.7%), 토양(54.8%), 소음·진동(5.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음·진동은 동과 읍·면 모두 만족률이 가장 낮은 부문이다.

표 3-87. 환경 만족도

(단위: %)

	만족도	동	읍·면	전국
대기	매우 만족	8.0	32.4	12.3
	약간 만족	26.3	35.0	27.8
	보통	47.1	24.7	43.2
	약간 불만족	15.9	6.7	14.3
	매우 불만족	2.8	1.2	2.5
수질	매우 만족	6.4	25.1	9.7
	약간 만족	25.6	34.7	27.2
	보통	55.6	30.8	51.2
	약간 불만족	10.8	8.1	10.3
	매우 불만족	1.6	1.3	1.6
토양	매우 만족	5.7	21.9	8.5
	약간 만족	23.4	32.9	25.0
	보통	53.9	34.3	50.4
	약간 불만족	14.5	9.6	13.7
	매우 불만족	2.6	1.3	2.4
소음·진동	매우 만족	5.4	23.3	8.6
	약간 만족	18.5	29.5	20.4
	보통	41.6	29.3	39.5
	약간 불만족	26.6	14.3	24.5
	매우 불만족	7.9	3.5	7.1
녹지	매우 만족	11.3	25.8	13.8
	약간 만족	29.6	31.9	30.0
	보통	40.7	30.9	39.0
	약간 불만족	14.2	8.8	13.2
	매우 불만족	4.3	2.6	4.0

주: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결과임.

자료: 통계청(2012), 사회조사.

- 군의 녹지율과 입목지 비율은 각각 3.5%와 6.4%로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높다. 또한 1인당 입목지는 군이 1,063m²/인으로 일반시(45m²/인)의 약 24배, 도농복합시(242m²/인)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표 3-88. 녹지 및 입목지 현황

(단위: %)

	녹지율	입목지 비율	1인당 입목지(m ² /인)
일반시	2.1	4.5	45
도농복합시	2.9	5.4	242
군	3.5	6.4	1,063

주1: 각 비율은 행정구역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임.

주2: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국토교통부(2012), 지적공부등록지현황.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농어촌 지역이 특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많다. 이는 가정용 생활폐기물보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은 1일 1인당 약 1kg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며 이 중 약 70%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이다. 가정생활폐기물은 농어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으나,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가장 많다.
 - 농어촌의 폐기물 재활용 비율도 32.9%로 특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높으나 광역시의 40%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표 3-89.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g/일/인)

	합계	가정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재활용비율(%)
전국 평균	940.4	412.2	528.2	34.0
특별시	957	537.7	419.3	31.6
광역시	1,157.2	426.4	730.8	40.1
중소도시	789.7	369.4	420.3	30.8
농어촌	1,079.6	309.8	769.8	32.9

주1: 생활폐기물만 집계한 결과이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된 수치임.

주2: 재활용비율은 전체 폐기물에서 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환경부(2012),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4차(2011~2012년).

- 대기오염 물질은 군이 일반시의 약 1/10수준으로 매우 적고 도농복합시에 비해서도 1/3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깨끗한 대기 환경을 갖고 있다.

표 3-90. 대기오염 물질 현황

	행정구역 단위 면적당 배출량 (Ton/km ²)	대기오염물질 구성 비율(%)				
		CO	NO _x	SO _x	PM10	VOC
일반시	165.0	30.4	31.7	5.9	3.0	29.0
도농복합시	39.7	23.9	36.2	8.4	3.8	27.8
군	13.2	26.4	38.8	10.0	4.5	20.2

주: 각 집단 내 시·군의 평균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0), 대기오염 배출량 통계.

-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수 역시 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게 분포해있다. 특히 도농복합시에 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평균 1/3에 불과하다.
- 그러나 군지역 주민의 1인당 연간 폐수 방류량이 도농복합시에 비해서는 적으나 일반시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난다.

표 3-9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단위: 개, m³/인)

	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수	평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수	1인당 연간 폐수 방류량
일반시	111.3	216.5	22.5
도농복합시	379.8	396.9	44.4
군	102.0	119.6	31.7

자료: 각 시·도(2012), 통계연보.

제 4 장

농업과 농가 그리고 농어촌 마을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농가와 농업 그리고 농어촌의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가와 농업 부문에서는 농가를 분석 단위로 하여 농가의 구성과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행정리를 단위로 농어촌 마을의 생활여건을 비교하였다.

1. 농업과 농가

- 2010년 우리나라 농가는 117만 가구, 농가 인구는 306만 명이며 2000~2010년 간 농가는 14.9%, 농가 인구는 24%가 감소하였다⁴. 농가 인구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약 4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41여만 명), 전남(40여만 명), 충남(39만여 명) 등에 많은 농가가 있다.

⁴ 농가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① 논이나 밭을 1,000㎡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이거나, ②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또는 ③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통계청(2011),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 농가 인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외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남의 감소율이 35%로 가장 크고 이어 전북(28.6%), 충남(26.8%)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1. 농가 및 농가 인구 변화

(단위: 천 가구, 천 명, %)

시도별	2000년		2010년		농가 증감률	농가인구 증감률
	농가	농가인구	농가	농가인구		
전국	1,383	4,031	1,177	3,063	-14.9	-24.0
서울	2	8	4	14	94.9	74.8
부산	8	29	8	25	0.6	-14.7
대구	13	43	17	50	31.7	17.2
인천	15	47	14	38	-9.9	-19.1
광주	12	38	13	38	9.4	0.7
대전	7	25	9	28	26.0	9.8
울산	12	38	12	34	-1.5	-10.4
경기	149	514	135	412	-8.9	-19.8
강원	77	238	72	192	-6.4	-19.4
충북	92	278	80	212	-13.2	-23.8
충남	180	539	151	394	-15.7	-26.8
전북	137	389	109	278	-20.4	-28.6
전남	233	606	170	396	-26.8	-34.7
경북	236	647	202	491	-14.6	-24.1
경남	170	464	141	347	-17.0	-25.1
제주	39	129	38	115	-3.1	-11.3

주: 개인농가만 집계한 값임.

자료: 통계청(2000, 2010) 농림어업총조사.

- 농가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
- 2010년 농가 인구에서 60~69세 인구가 2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50~59세(19.2%), 70~79세(17%)의 비율이 높다. 즉 현재 우리나라 농가 인구에서 50, 60, 7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 연령별 농가 인구 변화

(단위: 천 명, %)

	2000년	2010년	증감률(%)
합계	4,031(100)	3,063(100)	-24.0
0~9세 이하	258(6.4)	142(4.6)	-45.0
10~19세 이하	462(11.5)	261(8.5)	-43.5
20~29세 이하	417(10.3)	213(6.9)	-49.0
30~39세 이하	352(8.7)	217(7.1)	-38.3
40~49세 이하	531(13.2)	364(11.9)	-31.6
50~59세 이하	676(16.8)	587(19.2)	-13.2
60~69세 이하	846(21.0)	622(20.3)	-26.5
70~79세 이하	375(9.3)	521(17.0)	39.0
80세 이상	112(2.8)	137(4.5)	21.7

주: 괄호는 총 농가 인구에서 각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2000, 2010) 농림어업총조사.

- 우리나라 농업 종사 인구는 226만 명으로 면지역에 약 62%(140여만 명)가 분포해 있으며 읍보다 동에 약간 많은 인구가 있다. 면지역 농업 종사 인구는 87.1%가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나 읍과 동으로 갈수록 주 종사분야가 농업인 비율은 줄어든다.
- 동과 읍에서는 주종사분야가 기타로 응답한 비율이 면에 비해 높으며, 특히 동에서는 주 종사분야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표 4-3. 농업인구의 주 종사분야

	농업 종사인구 (천명)	주 종사분야(%)						
		농업	임·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기타
전국	2,260	81.7	0.9	2.2	1.6	1.9	1.9	17.6
동	438	68.2	0.4	3.8	2.6	3.8	2.3	31.6
읍	427	77.7	0.8	2.7	2.0	2.5	2.1	21.3
면	1,395	87.1	1.1	1.6	1.2	1.1	1.7	12.1

주: 농업 종사인구는 농가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으로 지난 1년 간 1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농가 인구의 교육정도를 보면 전체 농가 인구의 15.8%가 대학이상을 졸업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고등학교+대학교이상)이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면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약 31% 수준이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초등학교+안받았음)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표 4-4. 교육정도별 농가 인구

	6세이상 농가인구 (천명)	교육정도별 비중(%)				
		안 받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국	2,987	12.5	31.8	16.2	23.6	15.8
동	660	5.9	21.2	15.0	28.8	29.1
읍	585	10.8	29.7	16.7	26.3	16.6
면	1,742	15.6	36.6	16.6	20.6	10.6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경지가 있는 농가는 약 116만 가구이며, 총 경지 면적은 약 145만ha로 가구당 약 1.2ha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의 경지면적이 약 24만ha로 가장 넓고 이어 경북(약 22만ha), 충남(약 21만ha)의 순으로 경지면적이 넓다.
- 가구 당 경지면적은 전북이 1.6ha로 가장 넓고 이어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이 1.4ha로 넓은 경지를 경작하고 있다.

표 4-5. 농가 경지 현황

(단위: 가구)

	경지가 없는 농가 수	경지가 있는 농가			
		가구 수	경지면적 (ha)	미경작 면적 (ha)	가구당 경지면적
전국	13,556	1,163,762	1,449,418	19,599	1.2
서울	37	4,086	2,905	77	0.7
부산	94	8,363	6,760	118	0.8
대구	214	16,760	10,382	276	0.6
인천	137	13,698	17,486	153	1.3
광주	92	12,987	11,566	142	0.9
대전	37	8,877	5,768	108	0.6
울산	128	11,996	8,730	127	0.7
경기	2,161	133,171	153,825	1,548	1.2
강원	628	71,844	98,077	1,733	1.4
충북	917	79,046	93,876	1,194	1.2
충남	1,495	149,929	214,824	1,823	1.4
전북	1,390	108,043	177,057	1,359	1.6
전남	1,652	168,561	243,339	2,943	1.4
경북	2,752	198,899	218,340	3,561	1.1
경남	1,450	139,981	132,594	3,266	0.9
제주	372	37,521	53,890	1,171	1.4

주: 경지는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작물재배에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며 논과 밭으로 구분됨.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농가의 연간 평균 소득은 약 2천 3백여만 원이며 농업소득이 약 40%(9백여만 원)를 차지한다. 농가 순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2천 9백여만 원이며 이어 제주, 충남, 경북지역이 높다.
- 경북은 농가 순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와 반대로 경기도는 농업소득의 비율이 24%로 가장 낮다.

표 4-6. 농업 및 농외소득

(단위: 천 원)

	농가순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업소득비율 (%)
평균	22,713	9,127	13,585	40.2
경기	29,607	7,110	22,497	24.0
강원	21,306	6,877	14,429	32.3
충북	21,540	6,147	15,393	28.5
충남	24,501	11,902	12,599	48.6
전북	18,468	8,653	9,815	46.9
전남	18,452	8,615	9,837	46.7
경북	23,193	13,458	9,735	58.0
경남	20,192	6,313	13,879	31.3
제주	28,546	12,005	16,541	42.1

주1: 농가 순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산한 총액을 말함.

주2: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임.

주3: 농외소득은 농가가 농업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 겸업소득과 사업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주4: 농업 소득 비율은 농가 순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2012), 농가경제조사.

- 농업의 소득률 및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전국 농가의 농업 소득률은 약 33%로 농업 수입의 약 67%를 농업 경영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시간 당 약 1만 7천원과 토지 10ha 당 130여만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 농업 소득률이 가장 높은 즉 농업 경영비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농업 총수입의 약 41%를 소득으로 올리고 있다.
 -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와 경북 지역으로 시간 당 약 1만 9천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토지 생산성은 경북이 10ha 당 약 169만원으로 가장 높다.
 - 농가는 총 자본의 90% 이상이 자기 자본이며 자기 자본에서 약 7~8% 내외의 부채를 갖고 있다.

표 4-7. 농업의 수익성·생산성·안정성 지표

	농업소득률 (%)	노동생산성 (천원/시간)	토지생산성 (천원/10ha)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
평균	33.08	17	1,296	7.16	93.32
경기	28.81	19	1,400	7.24	93.25
강원	21.94	14	1,368	7.89	92.68
충북	30.71	14	1,074	7.41	93.10
충남	39.27	17	1,437	4.91	95.32
전북	30.99	18	966	8.43	92.22
전남	34.66	16	941	7.76	92.80
경북	41.36	19	1,685	7.35	93.15
경남	24.02	14	1,465	8.64	92.05
제주	35.19	17	1,247	7.34	93.16

주1: 농업소득률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 농업총수입 *100

주2: 노동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자영 농업 노동시간

주3: 토지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경지면적(10a)

주4: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100

주5: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100

자료: 통계청(2012), 농가경제조사.

○ 전체 농가의 12.9%는 농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가 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울산의 농가가 농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비율이 21.5%로 가장 높고 이어 충북(20.2%), 대전(18.7%), 광주(18.1%) 지역의 비율이 높다.

-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농축산물 직판장을 경영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고, 광주와 충북은 식당 경영 농가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다.

표 4-8. 농업 관련 사업 경영농가

	전체 농가 (천가구)	농업관련 사업 경영농가 비율(%)						
		합계	농축산물 직판장	농축산물 직거래	식당 경영	농축산물 가공업	농기계 작업대행	농촌 관광사업
전국	1,177	12.9	2.4	7.6	0.8	0.7	2.0	0.4
서울	4	13.2	2.6	8.6	0.8	0.5	1.1	0.2
부산	8	11.6	1.9	6.9	0.8	0.5	1.8	0.2
대구	17	13.2	2.5	7.5	0.7	0.9	2.3	0.5
인천	14	15.4	3.4	11.3	0.4	0.6	0.3	0.4
광주	13	18.1	1.2	13.9	1.5	0.5	1.7	0.2
대전	9	18.7	6.4	10.1	1.3	0.6	0.7	0.1
울산	12	21.5	3.2	15.3	1.4	0.6	1.4	1.8
경기	135	10.5	2.3	6.3	0.7	0.2	1.3	0.1
강원	72	14.3	2.6	10.2	1.0	0.3	0.3	0.2
충북	80	20.2	2.8	15.3	1.5	0.2	0.7	0.1
충남	151	16.2	3.0	9.9	1.3	0.5	2.3	0.4
전북	109	17.4	3.3	10.9	1.4	0.7	1.3	1.3
전남	170	16.2	2.9	9.9	0.9	1.7	2.5	0.3
경북	201	10.5	2.0	5.4	0.6	0.5	2.3	0.4
경남	141	5.5	1.1	3.5	0.3	0.2	0.4	0.4
제주	38	11.1	2.1	5.9	0.5	0.6	2.5	0.3

주: 농업 관련 사업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므로 비율의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2. 농어촌 마을

- 전국에는 3만6천여 마을(행정리)이 있다. 2005~2010년 간 마을의 수는 약 400여개 증가하였으나 인구 감소에 따라 마을의 규모는 계속 작아지고 있다.
 - 가구가 20호 미만인 과소화 마을은 2005에는 2,048개로 전체 마을에서 5.7%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3,091개, 8.5%로 증가하였다. 20호 미만 마을과 20~59호 이하 규모의 마을 수는 늘고, 60호 이상 규모의 마을들은 모두 수가 줄어들었다.

표 4-9. 농어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단위: 개, %)

	20호 미만	20~59호	60~99호	100~149호	150호이상	합계
2005년	2,048 (5.7)	17,780 (49.3)	8,174 (22.7)	3,253 (9.0)	4,786 (13.3)	36,041 (100)
2010년	3,091 (8.5)	19,281 (52.8)	7,291 (20.0)	2,525 (6.9)	4,308 (11.8)	36,496 (1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성주인·채종현(2012)에서 재인용).

- 과소화 마을의 약 60%는 군에 분포되어있으며, 특히 대부분이 면에 분포되어 있다. 과소화 마을의 증가는 도농복합시와 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나 도농복합시보다 군에서, 읍보다 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 과소화 마을 비중이 도농복합시에서는 4.8%에서 7.2%로 2.4%p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군은 2.9%p 증가하였고 군의 면에서는 3%p 증가하였다.

표 4-10. 인구 과소화 마을(20호 미만) 현황

(단위: 개, %)

	도농복합시			군			전체
	읍	면	소계	읍	면	소계	
2005년	59 (1.9)	639 (5.6)	698 (4.8)	111 (2.5)	1,239 (7.3)	1,350 (6.3)	2,048 (5.7)
2010년	99 (3.3)	879 (8.4)	978 (7.2)	286 (5.5)	1,827 (10.3)	2,113 (9.2)	3,091 (8.5)

주: 괄호안은 해당 지역 전체 마을 수 대비 과소화 마을 수 비중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성주인·채종현(2012)에서 재인용).

- 마을과 읍·면 사무소 소재지까지의 소요시간으로 보면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마을의 규모가 작다.
 - 읍에서는 소재지 내 마을의 65.4%가 150호 이상의 마을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율은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규모가 큰 마을이 읍 소재지 주변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면에서는 읍과 달리 소재지에 60~99호 마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마을 규모별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 그러나 읍과 마찬가지로 면 소재지까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20~59호 와 20호 미만 마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면 소재지에서 4분 이하 거리에서도 20~59호 규모의 마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표 4-11. 읍·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소요시간별 마을 비율

(단위: %)

	구분	소재지	4분 이하	5~9분	10~19분	20분 이상	합계
읍	20호미만	1.4	2.0	3.7	5.6	10.6	4.7
	20~59호	7.5	17.9	25.9	45	46	32.9
	60~99호	11.2	15.5	19.1	20.4	24.4	19.3
	100~149호	14.5	13.5	11.4	8.3	8.6	10.4
	150호 이상	65.4	51.1	39.8	20.7	10.5	32.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면	20호미만	1.7	7.3	8.7	10.7	16.2	9.6
	20~59호	20.7	54.8	60	62.1	61.6	58.6
	60~99호	31.6	21.9	20	19.4	15.6	20.2
	100~149호	21.8	7.1	5.3	4.6	4.5	5.9
	150호 이상	24.3	8.9	6.0	3.2	2.1	5.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성주인·채종현(2012)에서 재인용).

- 농어촌 마을의 인구 감소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주택 중 5.4%가 빈집이며 동은 빈집비율이 4.1%인데 비해 읍은 7.4%, 면은 11.7%로 농어촌 지역에 빈집의 비율이 매우 높다.
 - 빈집의 비어있는 기간을 보면 동에 있는 빈집은 42.3%가 3개월 미만인데 비해 읍에서 면으로 갈수록 1년 이상 장기간 비어있는 집의 비중이 늘어나며 특히 면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이 절반에 이른다.
 - 더불어 읍과 면에 있는 빈집은 각각 12.9%와 22%가 관리가 되지 않는 파손된 주택으로 나타나 동의 빈집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12. 빈집 현황

(단위: %)

	총주택 중 빈집비율	빈집 중 비어있는 기간별 비율			빈집 중 파손주택 비율
		3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전국	5.4	34.8	32.1	33.2	11.8
동	4.1	42.3	33.8	23.9	6.4
읍	7.4	31.4	33.7	35.0	12.9
면	11.7	21.4	27.9	50.7	22.0

주: 빈집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대폭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상태인 ‘폐가’는 제외되었음.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농어촌 마을의 20.1%는 1개 이상의 도농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교류 활동은 ‘자매결연’으로 행정리의 12.6%가 참여하고 있고, 이어 ‘농림수산물 직거래’의 비율이 7%로 가장 높았다.
- 도농교류활동 행정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행정리의 47.7%가 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어 인천이 46.9%로 높았고, 대구는 9.8%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4-13. 도농교류활동 행정리 수

(단위: 개, %)

	도농 교류활동 행정리 비율	도농교류사업별 비율						
		자매결 연	체험관 광	농림 수산물 직거래	농림 수산물 직판장	음식물 판매 및숙박	주말농 원	기타
전국	20.1	12.6	3.7	7.0	1.8	3.4	0.9	0.9
부산	27.3	20.9	5.8	6.5	3.6	0.7	5.0	-
대구	9.8	8.7	0.8	1.5	0.4	0.4	0.8	0.4
인천	46.9	29.6	10.0	17.3	5.0	11.5	1.5	3.1
울산	23.9	19.1	3.0	2.1	0.6	1.8	3.3	0.6
경기	19.2	12.0	3.8	5.3	2.0	3.5	2.3	1.0
강원	31.9	20.5	9.7	15.5	3.3	10.8	1.6	2.8
충북	24.6	15.8	3.7	10.0	2.3	2.2	0.9	0.8
충남	18.3	11.8	4.2	6.0	1.8	3.0	0.8	0.9
전북	12.5	6.4	3.0	5.3	1.4	2.3	0.5	0.5
전남	15.2	8.6	2.6	5.4	1.4	2.0	0.4	0.5
경북	23.7	14.5	3.0	9.2	1.9	3.1	0.5	0.5
경남	23.2	15.9	3.2	4.8	1.5	4.0	0.7	1.1
제주	47.7	39.0	14.0	15.7	4.7	9.9	0.6	2.3

주: 도농교류사업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므로 비율의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51만여 농가 중 34.4%는 농림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농림업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 정보 활용 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40.4%)이며 이어 경북(39.1%), 인천(37.5%)과 제주(37.5%)의 비율이 높았다.

표 4-14. 농촌의 정보화 및 활용 현황

	컴퓨터 보유농가 (가구)	농림업 정보 활용 농가 비율(%)				
		합계	농림업 정보수집	전자 상거래	관광사업 (주말농원, 민박 등)	기타 (농림업경영관리, 시설자동화, 기타)
전국	510,078	34.4	30.1	1.3	0.3	2.7
서울	1,786	35.9	33.3	0.0	0.0	2.6
부산	5,313	21.7	20.3	0.5	0.0	1.0
대구	12,053	21.7	20.1	0.6	0.1	1.0
인천	6,307	37.5	33.2	2.2	1.6	0.5
광주	6,053	32.7	25.2	2.1	0.0	5.3
대전	5,992	30.7	30.4	0.3	0.0	0.0
울산	6,627	22.3	21.0	0.1	0.1	1.1
경기	83,115	31.1	27.8	0.6	0.2	2.4
강원	36,057	40.4	35.5	1.8	0.9	2.2
충북	38,337	32.9	29.1	1.3	0.3	2.3
충남	60,254	33.4	29.3	1.0	0.1	3.1
전북	42,285	34.3	29.0	1.5	0.1	3.7
전남	52,460	36.8	32.8	0.9	0.6	2.4
경북	77,503	39.1	34.5	2.1	0.1	2.4
경남	51,996	33.2	26.2	1.6	0.1	5.2
제주	23,940	37.5	34.2	2.1	0.2	1.0

자료: 통계청(2012), 농림어업조사.

- 농어촌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현황을 시내버스 운행횟수를 통해 보면, 전국 농어촌의 절반 이상은 하루 10회 이상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10% 이상의 행정리는 1일 1~3회밖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있다.
- 특히 경북의 경우 20%이상의 행정리가 1~3회밖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하루 10회 이상 운행되는 행정리도 절반에 못 미친다.

표 4-15. 시내버스 운행횟수별 행정리 비율

(단위: %)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전국	10.8	25.3	11.3	52.6
부산	0.8	8.5	3.1	87.7
대구	5.7	8.6	4.9	80.8
인천	3.9	29.0	16.9	50.2
울산	1.3	8.9	4.8	85.1
경기	5.4	16.8	7.8	70.1
강원	14.9	26.4	9.6	49.0
충북	10.1	26.5	12.9	50.5
충남	8.6	26.3	12.4	52.8
전북	6.0	22.1	15.4	56.5
전남	10.9	29.9	13.0	46.1
경북	20.5	28.3	9.8	41.4
경남	13.0	27.3	8.3	51.4
제주	11.1	11.1	2.5	75.3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지역 간 교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소요시간에서는 전국 마을의 약 1/3이 터미널에서 10분 내에 있으며, 30분 내에는 약 80% 이상의 마을이 있다.
-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과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95% 이상의 마을이 60분 내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과 경남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의 비율이 다소 높다.

표 4-16.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소요시간별 행정리 수

(단위: %)

	행정리내 또는 10분미만	10~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전국	31.5	49.5	16.8	2.2
부산	37.0	27.5	34.1	1.4
대구	25.8	27.8	41.1	5.2
인천	41.4	37.4	9.9	11.3
울산	25.1	56.4	17.9	0.6
경기	28.9	51.2	19.5	0.5
강원	41.2	41.9	15.1	1.9
충북	30.1	52.9	15.9	1.1
충남	26.4	53.1	19.3	1.2
전북	27.1	54.1	17.8	1.0
전남	28.9	52.0	13.8	5.4
경북	33.0	46.8	17.9	2.2
경남	40.3	43.4	14.2	2.1
제주	69.5	21.0	6.0	3.6

주: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간이정류장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농어촌 마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면 85.4%이상의 행정리에서 30분 내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시간 내에 98%이상의 행정리가 병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은 병원까지 거리가 1시간 이상 되는 행정리가 17.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7. 병원까지 소요시간별 행정리 비율

(단위: %)

	행정리내 또는 10분미만	10~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전국	34.1	51.3	12.9	1.7
부산	39.6	48.2	12.2	0
대구	50.0	48.1	1.9	0
인천	22.2	42.0	18.3	17.5
울산	44.3	46.1	9.6	0
경기	41.7	50.1	8.0	0.1
강원	31.7	46.2	19.7	2.5
충북	30.4	52.4	15.2	2.0
충남	31.9	54.5	12.8	0.8
전북	28.2	57.5	13.1	1.2
전남	40.0	48.9	7.9	3.2
경북	28.3	50.4	19.	1.5
경남	35.7	50.1	13.1	1.1
제주	44.2	51.2	4.7	0

주: 병원은 종합병원 외 병·의원과 한의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파출소와 119 안전센터(구조대 포함)까지 소요시간을 보면 파출소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 절반의 마을들이 10분미만 거리 내에 있으나 119 안전센터까지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 울산,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지역이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가 먼 마을의 비율이 높다. 이는 도서와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8. 파출소와 119 안전센터까지 소요시간별 행정리 비율

(단위: %)

	파출소까지 거리별 비율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별 비율		
	10분미만	10~29분	30분 이상	10분미만	10~29분	30분 이상
전국	51.5	46.3	2.2	36.1	54.1	9.8
부산	48.9	51.1	0.0	35.5	48.6	15.9
대구	54.2	45.8	0.0	54.5	45.5	0.0
인천	55.0	40.8	4.2	45.0	43.1	11.9
울산	47.0	50.6	2.4	34.4	57.2	8.4
경기	48.8	50.1	1.1	45.9	50.1	4.0
강원	46.1	49.2	4.6	41.6	49.9	8.5
충북	44.2	53.1	2.6	41.9	54.3	3.8
충남	51.3	46.9	1.8	38.3	53.4	8.4
전북	59.3	39.3	1.4	32.1	56.6	11.3
전남	53.9	43.4	2.6	36.2	52.9	10.9
경북	49.3	48.9	1.8	30.9	56.5	12.6
경남	52.2	45.2	2.6	27.6	57.2	15.2
제주	47.1	52.3	0.6	43.6	55.2	1.2

주: 119 안전센터에는 구조대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농어촌 주민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촌정책으로 ‘농업 미래 보호’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이어 ‘주민교육과 건강증진’, ‘교통수단 확보’, ‘자연환경 보호’를 많이 선택하였다.
- 그러나 2007년에 비해 2011년에는 ‘농업 미래 보호’를 선택한 비율이 약 5%p 크게 감소하고 ‘자연환경 보호’, ‘교통수단 확보’의 응답 비율이 약 4%p 증가하여 주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9. 정부가 우선해야 할 농촌정책에 대한 응답 비율

		2007	2009	2011
응답자수 (명)		1,991	1,956	1,983
응답 비율 (%)	농업미래보호	31.0	39.5	26.1
	자연환경보호	6.4	8.0	10.7
	주택보급개량	6.7	6.5	9.3
	교통수단확보	8.2	8.1	12.7
	주민교육과 건강증진	20.5	19.0	21.8
	지역사업채투자확대	12.5	7.5	8.0
	편의시설제공	13.5	11.4	9.1
	지방자치증진	1.2	0.0	2.3

자료: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촌생활지표조사.

참고 문헌

- 성주인·채종현, 2012,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과제, 농정포커스 제 2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채종현, 2012,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민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54-1.
- 마상진·조미형·한영광, 2012.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평생학습정책/응급의료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54-4.

연구자료 D374

통계로 살펴보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2.
발 행 2013.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